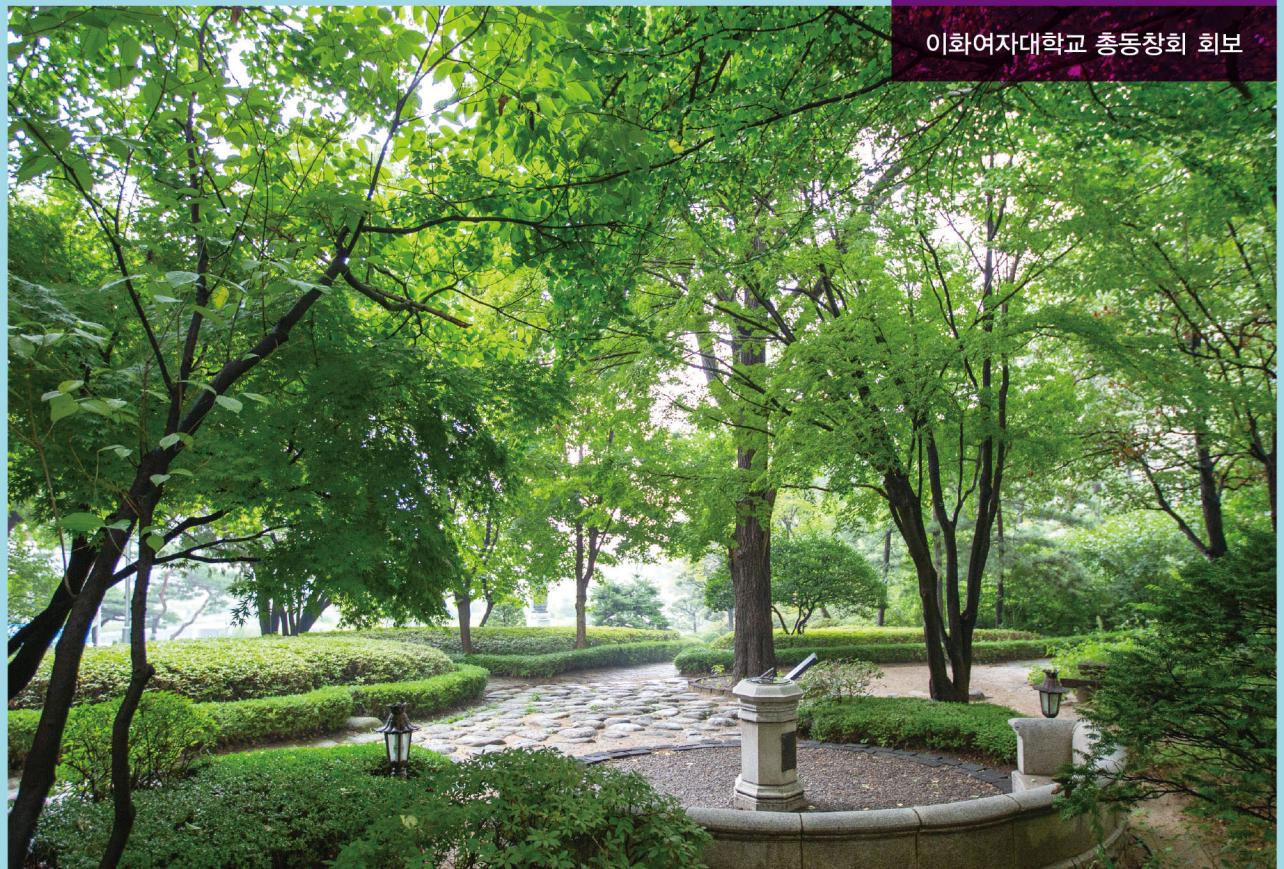


2023년 여름호 vol.171

이화 동창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및 감사찬양예배
2023 '영원한 이화인' · '올해의 이화인' 추대
김용연·이해영·문혜성 동창, 제8회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5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5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해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3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5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3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6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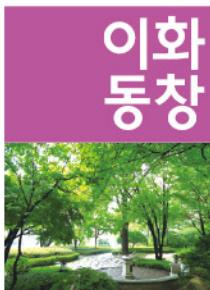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표지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교수)
아멘겔러 해시계의 녹음(錄陰)(2017년)

편집위원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곽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김경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
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8, 편집위원)
허윤선(정의 89, 편집위원)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최정은(커미부 89, 편집위원)

발행 2023년 7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3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03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오랜만에 대면으로 기념식 열려,
활기 넘친 교정에는 동창과 가족들 발걸음 이어져

10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되기 위해

12 2023 영원한 이화인

이종옥 동창 등 23인

14 2023 올해의 이화인

엄현진 동창 등 45인

17 빛나는 이화인 / 국립암센터 최고연구원·연구부소장 김용연 동창

“꿈이란 잠시 미룰 수는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21 빛나는 이화인 /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 동창

빛나는 이화인을 더욱 밝게 비춰준
'이화'라는 버팀목

24 빛나는 이화인 / 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문혜성 동창

인고의 시간이 만든 최초, 최고의 수식어

27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

총동창회 주요 사업과 소식 공유
나눔과 배려의 이화 정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

32 특별 기고 / 고 최승현 교수님을 기리며

음악 연구에 대한 열정,
음악학 학풍의 기틀을 마련한 나의 스승

34 총동창회 소식

남상택 전 회장, 고문으로 추대
네덜란드 지회 정식승인

38 선교부 소식

우간다의 작은 거인, 김영자 선교사를 만나다

40 모교 소식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식 개최 외

44 대학(원) 소식 자연과학대학 외

48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53 지회 소식 네덜란드 지회 외

63 동창 근황 박정복 동창 외



03



03



10



12



14



17



27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 16:6)

사랑하는 하나님,

모교 이화의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절기에,

137년 전 이 땅 여성들의 아픔을 들으신 당신께서

스크랜튼 선교사의 마음에 담아 주셨던 생명의 길 앞에 머물러

우리로, '이화인'으로서의 삶을 성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일상의 고통으로 참담했던 여성들에게 메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리시듯

모교 이화를 시작하심으로 배움의 문을 열어 주시고

친히 줄로 재어 주신 이 아름다운 이화 동산에서 이화의 선배들로 하여금

사랑의 수고로 손 내밀어 생명의 씨앗들을 심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이 땅 면면히 이어져 온 흔적들을 결코 만홀히 여기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성들 안에 눌리어 가리어져 있던 내밀한 성정들을 귀히 여기심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향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선한 길 향해 나아가도록

이화 안에 생명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부어 주신 은총이 믿음의 계보로 흐르고 흘러

허물없이 당당하고 단단한 '이화인'으로 겸손히 연대케 하시고

안과 밖이 진실되게 자발적 섬김과 나눔과 돌봄을 구현하면서

오늘까지 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간구하옵기는,

모교 이화의 구성원들과 동창들과 새벽이슬 같은 이화의 청년들이

소망 가운데 삼겹줄의 기도로 하나 되어 소소한 일에 함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서로의 다양함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당신의 뜻 헤아려 온 땅 향해 그 걸음 정성스레 옮기게 하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오랜만에 대면으로 기념식 열려, 활기 넘친 교정에는 동창과 가족들 발걸음 이어져

5월 31일(수) 오후 2시,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모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5월의 신록이 반짝이는 교정 곳곳에는 이화 그린 휘장이 경사스러운 날을 축하하며 펼쳐졌다. 올해는 3년간 중단됐던 학창 경연이 오랜만에 재개되었으며, 마스크를 벗고 교가 제창을 하는 등 이전의 행사 모습을 거의 되찾았다. 반짝이는 무대의 상을 입은 동창들과 분홍색 한복과 초록 당의를 입은 이화인들,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재상봉 동창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이화 캠퍼스에는 활기가 넘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경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모교 총장, 김선

욱·김혜숙 전 총장, 조종남 전 총동창회장, 이경숙·김영주·남상택 총동창회 고문 등 내빈과 졸업 50주년·30주년 재상봉 동창 및 이화 가족 1,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부 기념식 사회를 맡은 김경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가 개회를 선언하고, 웅장한 오르간 반주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부르는 감동 속에 동창의 날 행사의 문이 열렸다.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개회 기도를 통해 “137년 동안 여러 어려움을 통해 이화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5만 이화 동창들이 예수님 자녀로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존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우리는 모두 올해의 이화인이고 영원한 이화인이며 빛나는 이화인입니다”

지난 3월, 제19대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된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이 기념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맞이하였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 동창과 내외빈을 모시고 모교 이화의 137주년 생일을 축하하게 되어 참으로 감동이 크다”라고 하면서 “115년 된 총동창회와 25만 명 이화 동창이 세계 곳곳에 반듯하게 자리매김하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수고하고 아낌없이 손 내밀어준 여러 선배들께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당하지만 자신을 성찰하고 전문성을 기르되 공익을 생각하면서 선한 의지로써 자발적 섬김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모교 이화에서 보고 듣고 배웠다”고 말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의 창립 정신이 현재까지 우리 안에 남아서 흐르고 있음에 감사드렸다. 또한 “‘올해의 이화인’과 ‘영원한 이화인’ 및 ‘빛나는 이화인’, ‘졸업 30주년’과 ‘50주년’ 대표 그리고 각 전문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올해의 이화인이고, 영원한 이화인이고, 빛나는 이화인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김옥길 전 총장의 말씀 “참되게 착하게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어 이화인다운 이화인, 그 자랑스러운 멋이 어느 바람결에도 풍기는 그윽한 이화인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인사말을 맺었다.

이화 정신을 빛낸 동창에게 ‘빛나는 이화인’ 상 수여

제8회 ‘빛나는 이화인’ 상은 암세포 생물학 분야



이명경 총동창회장

김은미 모교 총장

를 연구하는 과학자 김용연(생명 87, 국립암센터 최고 연구원·연구부소장) 동창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이해영(국문 88,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동창 그리고 부인종양학 부분의 세계적 명의로서 부인과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개발하고 로봇 수술 개발 및 교육 보급화로 의료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문혜성(의학 88, 모교 의과대학 교수·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동창이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순금으로 만든 열쇠와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증서 수여식 및 재상봉 동창 연설

다음으로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영원한 이화인’ 23명을 대표하여 이종옥(화학 73) 동창에게 증서를 수여했고, ‘올해의 이화인’ 45명을 대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김용연·이해영·문혜성 동창(왼쪽부터)



표해서 엄현진(영문 93) 동창에게 중서를 수여했다.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졸업 50주년과 졸업 30주년을 맞는 재상봉 동창을 대표해서 임학선(무용 73) 동창과 김선희(영교 93) 동창에게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졸업 50주년(1973년 졸업) 동창을 대표하여 연단에 오른 임학선 동창은 “이화인은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자유롭게 또는 당당하게 삶을 이어가면서 각 분야를 이끌어 왔다”면서 “모교가 세계적인 학교로 발돋움한 현재에 새로운 예술 사조의 등장을 바라보며 후배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된다”고 소망했다.

30주년 동창 대표 김선희 동창은 “일주일에 한번 참석한 예배시간을 통해 의대와 간호대의 의료봉사활동과 나눔의 깊은 의미를 배웠고, 가야금 명인 고 황병기(한국음악과) 명예교수의 연주를 들으면서 국악의 멋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예술적 감각도 키울 수 있었다”고 추억하였다. 김 동창이 “졸업 30주년을 맞은 우리 모두의 전성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라고 외치자, 참석한 동창들은 동조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화는 룰 모델을 만드는 선도적 학교”

이어 김은미 총장이 모교소식을 전했다. 김은미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여성 AI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데이터사이언스 학과’를 설립하여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첨단 분야의 독보적인 교육 및 연구를 선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화는 룰 모델을 쫓아가는 학교가 아니라 룰 모델을 만드는 학교’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김 총장은 이화 15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화 역사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이는 초기 선교사의 기록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이화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살피고 이화의 성과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화의 이야기를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캠퍼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관 재건축이 완료되어 8월에 봉헌식을 갖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1957년 중앙도서관으로 건축됐던 헬렌관이 첨단 도서관으로 재탄생되어 현재의 중앙도서관과 연결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생활환경관은 약학대, 신산업융합대학, 간호대학, 인공지능대학 등 여러 단과대학을 포함해 산학연구와 창업공간이 들어서는 첨단 미래형 건물로 신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앞으로도 동창들이 많은 응원과 기도로 지원해 주길 호소하며 인사말을 맺었다.

‘영원한 이화인’ 대표 이종옥(왼쪽) 동창과 ‘올해의 이화인’ 대표 엄현진 동창



졸업 50주년과 30주년 재상봉 동창 대표 임학선(왼쪽)·김선희 동창





무대에 오른 '영원한 이화인'(왼쪽)과 '올해의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일부 양장 예복 입는 등 변화 시도

곧이어 2부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이 강승애(체육 95) 회우부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경쾌한 가요(덕평스의 〈VIVA 청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아름다운 미소를 띤 '올해의 이화인'이 대강당으로 입장하였다. 흰 저고리에 분홍 치마, 초록 고름을 맨 전통 한복을 입은 이화인을 뒤따라 흰색 재킷에 초록색 타이로 색 맞춤한 양장 예복의 이화인 5명이 등장해 동창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이 행진을 마치고 무대에 오르자 이어 우아한 어여머리에 자주 고름과 녹색 당의를 입은 '영원한 이화인'이 무대 양옆으로부터 입장하였다. 사회자가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을 한 명 한 명 소개할 때마다 해당 과 동창들의 구호로 장내는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다. 참석한 동창과 가족들도 찬사를 보내며 환호했다.

추대식에는 '올해의 이화인' 45명 중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6명을 제외한 39명과, '영원한 이화인' 23명 중 김영순(보건간호 73) 동창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해외에서 추대된 4명의 '영원한 이화인'과, 2명의 '올해의 이화인'이 추대식을 위해 먼 거리를 달려와 자리를 빛냈다. 북가주 지회장을 지낸 '영원한 이화인' 양승희(사

학 73) 동창은 "뽑아준 사학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로운 예복 의식의 변화에 대해 '올해의 이화인' 안근희(체육 93) 동창은 "이번에 의미 있는 시도를 했어요. 전통 한복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대다수는 전통 의상을 입기로 했지만 반대 의견도 존중하여 일부는 양장 예복을 입었습니다. 양장 예복은 흰색 의상으로 예를 갖추고 한복의 초록 고름과 같은 색 타이를 착용해 한복과 통일성을 주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사 전통인 한복을 입되 새로 맞추지 않고 선배들에게 물려 입었고, 이번 기회원 중 한복디자이너가 있어서 수정 보완을 해주었다고 한다. 안근희 동창은 "이 한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이러한 변화가 새롭게 정착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올해의 이화인' 기 대표 엄현진(영문 93) 동창은 "SNS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조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2023 '올해의 이화인'들과 도움을 준 2022 '이올'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 밖에도 2023 '올해의 이화인'은 꽃다발 부케와 앨범 제작도 마다하는 등 검소하고 실용적인 변화를택했다.

가족과 동창 및 동료들과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어머니 김영옥(영문 70) 동창이 2000년에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되었던 기억을 떠올린 고동연(장미 93) 동창은 "어머니가 기뻐하셨서 의미



이음회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가 더 크다”며 “어머니와 성격도 반대이고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경험을 하는 공통점이 생겨서 좋다”며 “모교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2부 추대식의 마지막 순서로 음악대학 동창 합창단인 ‘이음회’의 합창 공연이 펼쳐졌다. 이음회는 1986년 모교 100주년 특별연주회 기념으로 창단된 합창단이다(단장; 이선희(성악 76), 지휘; 황선미(피아노 93), 반주; 곽예림(피아노 12)). 최재도 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를 부른 이음회 동창들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시리라’라는 대목에서 웅장한 화음을 깊은 울림을 주며 감동을 선사했다.

네 팀 참여한 합창 경연, 뛰어난 노래 실력과 퍼포먼스 선보여

3부 합창 경연은 김경령 총무와 강승애 회우부장의 사회와 문주원(피아노 88) 음악부장의 진행으로 열렸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이날 합창 경연에는 네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두 달여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가팀들은 뛰어난 합창 실력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노랫말로 감동과 웃음을 안기며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첫 번째 참가팀은 조형예술대학(단장; 강승주(조소 87), 지휘; 김아영(도예 04), 반주; 김희주(대

학원 22)) 합창단으로, 곡목은 <푸르른 날, 서울탱고>였다. 조형예술대 합창단은 새로 바뀐 모교의 초록 졸업가운을 입고 무대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로 장엄하게 노래를 시작한 조형예술대 합창단은 흥겨운 탱고 리듬에 맞춰 가운을 벗어 던지고 정열의 붉은 탱고 의상으로 변신하였다.

합창단의 일원인 이재숙(도예 86) 동창은 조형예술대 특성을 살린 독특하고 센스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주 1~2회 만나서 맹연습을 했다고 전한다. “조형예술대가 디자인한 모교의 새 학위복을 입어 더욱 의미가 있었고, 나이를 묻지 말라 할 정도로 정열적인 댄스를 선보인 퍼포먼스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는 약학대학(단장; 박병희(약학 84), 지휘; 최영은(종음 97), 반주; 박유미(종음 97)) 합창단으로, 이봉조 곡 <무인도>를 무대에 올렸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 단원인 김미숙(약학 84) 동창을 선두로, 반짝이는 하늘색 드레스를 입은 33명의 약학대 합창단원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그동안 활동을 못 해 합창에 목말랐던 동창들은 졸업 50주년 동창이 주축이 돼 합창단 SNS를 활성화시키고, 쌍문동 드레스 전문점에서 3만 원으로 단체복도 맞추며 열성적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사운드가 풍성했고, 율동과 노래를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틀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모교 음대 박신화 교수의 심사 평가로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세 번째 참가팀은 생활환경대학(단장; 우미형(의직 77), 지휘; 박미경(의직 76), 반주; 이은경(가관 83)) 합창단으로, 우리 가곡 <봄처녀>와 <님이 오시는지>를 연이어 불렀다. 봄노래에 어울리는 은은하고 순수한 노란 의상에, 아름답고 고운 음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합창 경연에 나선 생활환경대학, 조형예술대학·법전원, 악학대학 합창단. 아래줄 왼쪽은 특별 공연을 한 아르모니아 합창단

색으로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솔로와 합창의 어우러짐도 좋아 감탄을 자아냈고, “곡에 맞게 잘 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 번째 참가팀은 법대·법전원(단장; 전성연(법학 70), 지휘; 최양숙(법학 70), 반주; 오정순(법학 72)) 합창단으로, ‘가요 메들리’를 선보였다. 흰색 상의에 검정 바지의 심플한 무대 의상에 해마다 다른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법대·법전원 합창단은 평균연령 80세의 합창단이지만 합창 경연에 한번 더 참가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무대에 서게 되었다고 한다.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 했었지’(이장희의 <한동안 뜸했었지>)로 시작하여,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노사연의 <바램>)라는 노래로 위로를 건네고, ‘나 혼자서는 못살아, 헤어져서는 못살아… 이화 없이 못살아~~~’(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살아>)라는 센스 있는 선곡으로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상황을 대변한 듯한 노랫말에 객석은 다 함께 손뼉을 치고 장단을 맞추며 호응했다. “연세가 제일 높은데 젊게 사시면서 젊은 노래를 불렀다고 특히 ‘이화 없이는 못

살아’라는 개사가 감동적이었다”는 심사평으로 찬사를 받았다.

네 팀의 공연이 끝나고 합창 경연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올해의 이화인’ 합창단 ‘아르모니아’(단장; 신난식(성악 73), 지휘; 이수연(성악 92), 반주; 장진영(피아노 06))의 특별 공연이 펼쳐졌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메들리로 준비한 합창단은, 스크린으로 펼쳐진 영상과 함께 뮤지컬 배우로 분장한 무대의상으로 특색 있는 무대 연출을 보여주며 묵직한 감동을 주었다.

다음으로 합창 경연 심사위원장인 모교 음악대학 박신화 교수가 심사위원인 임진(작곡 72) 이올 회장 및 광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형예술대학 합창단 ‘최고상’, 악학대학 합창단 ‘올해의 이화인상’, 생활환경대학 합창단 ‘대상’, 법대·법전원 합창단 ‘챔피언상’.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위트 넘치는 심사평이 나올 때마다 객석은 환호성과 웃음바다를 이뤘으며, 네 팀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최고 영예의상을 수여하는 즐거운 경연이 되었다. 참가팀에겐 꽃다발과 소정의 금일봉이 증정됐으며, 서열은 봉투를 열어봐야 안다는 재미있는 멘트로 끝까지 긴장감을



동창의 날 행사를 축하하는 이화 동창들(왼쪽)



동창의 날 기념품(오른쪽 위), 50주년과 30주년 동창들에게 전달한 펜던트(오른쪽 아래)

늦추지 않았다.

참석자들에게 '이화과자'와 기념품 선물

시상식이 끝난 후 동창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교가를 3절까지 부르며 동창의 날 행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은 식후 아령당에 모여 기념 사진을 찍으며 동창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매년 열리던 총장 초대 오찬은 생활환경관 재정비 사업으로 학생식당을 운영하지 못해 대신 '이화과자' 선물세트를 기념품으로 동창들에게 선물했다. '이화과자'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이화학당'이 설립한 장애인표준사업장(주) '이수매니지먼트'가 이화알프스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만들고 있다.

한편 총동창회는 사전에 교내외의 식음료 매장과 위치를 초청장에 표기해 학교를 찾는 재상봉 동창의 편의를 도왔으며,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동창들에게 대형 타올과 사회적 기업 '오티스타'가 디자인한 타포린 소재 가방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또한 당일 모교의 휴일임에도 박물관(100주년 기념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이화역사관)을 오픈하여 동창들에게 개방하였다. 총동창회 행사에 참여해 무대 정리를 도운 모교 재학생(한국음악과)들

과, 추대식 입장을 인도한 이화홍보대사 '이화캠퍼스 리더' 학생들과 유대감을 다지며 폭넓은 세대가 참여하는 예식이 되었다.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동창들은 각 과 단위로 기념식 전후에 자체적으로 모여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학과 깃발 아래 단체로 교내 투어를 했던 사회학과는 올해도 졸업 30주년·50주년 재상봉 동창이 기념식 전에 모여 재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한편 추대된 이화인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호대학 동창회는 기념식 참석 후 총회를 가졌고, 제주 지회 9명의 동창들은 기념식 참석을 위해 특별히 상경해 모교 곳곳을 둘러보며 정답을 나누었다.

한편 2022 '영원한 이화인' 박현숙(국문 57) 동창이 1,000만 원을 기부했고, 2003년 '올해의 이화인' 박경임(식영 73) 외 16명의 동창이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동창들의 축하도 잊따랐다.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를 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한껏 축하하고 축복하는 잔치 자리가 되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1886년 5월 31일에 메리 F. 스크랜튼 선교사의 헌신에 의해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화학당. 이화학당에 기초를 놓으시고, 137년의 성상을 지나는 가운데 함께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소유된 거룩한 이화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대강당에서 5월 9일(화) 오후 1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면으로 모여 감사찬양예배를 올려 드렸다.

강단 위에 세워진 200여 명의 이화 동창 찬양대의 감사와 환희가 가득한 대합창이 모교 김동근 교수의 지휘로 대강당에 울려 퍼지며 예배가 시작되었다.

안선희(기독 88) 교목실장은 ‘하나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연합하는 신앙에 대해 말씀을 선포했다.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분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의 봉헌 기도로 정성으로 드려진 이화인들의 현금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선교부원들이 다락방에 모여 중보기도 하는 136여 명의 이화 동창 선교사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줌으로 매주 미국 애틀랜타에서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조성숙(가정 64) 애틀랜타 선교부장이 그곳 동창 모임에서 모금한 소중한 현금을 선교부에 보내주어서 특별 현금으로 드려졌다.

중보기도 시간에 김은미 모교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이화의생명연구원장 김영주 교수, 이화기독학생연합 대표 박채은(대학원 뇌인지과학전공 석사과정) 학생의 기도가 있었다. 이화를 위한 중보기도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흡향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이화동



김은미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김영주 교수



박채은 학생



산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려 드렸다. 이어서 김명선 곡 <시선>을, 인도네시아 송사랑(융합보건 87), 필리핀 오은주(영문 74), 말레이시아 강병옥(과교 93)·박은진(피아노 96), 일본 김지윤(성악 07), 우간다 나칼레마 레베카(대학원 17), 동북아 최진아(사대원 08), 웨일즈 한현주(피아노 90), 아이티 김혜련(정의 88), 영국 박은경(유교 95)·조남희(교공 85), 중국 노선영(성악 02), 태국 김혜경(불어교육 82), 미국 신율미(수학 84), 레바논 최상경(불문 69) 등 15명의 동창 선교사들이 랜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화에 선교의 사명을 주신 열매를 보며 무한한 감사를 올려 드렸다.

튀르키예 땅에 묻은 어린 딸로 인해 오히려 선교지를 사랑하게 됐다는 천사랑(장미 86) 선교사의 신앙 간증은 가슴을 울렸고, 주의 새벽이슬 같은 국제 학생, 선교사 자녀, 이화 재학생의 찬양은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모교 음대 박신화 교수의 지휘와 박재은 교수의 인도로 이화인에게 자궁심을 무한히 안겨주는 교가를 힘차게 부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올려 드렸다.

감사찬양예배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글·안영주(유교 88)

1. 각자에서 선교의 사명을 펼치고 있는 이화 동창 선교사들이 이 랜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렸다

2. 200여 명의 이화 동창 찬양 대의 대합창 모습

3. 천사랑 선교사가 튀르키예 지진 상황을 전하며 간증해 큰 감동을 주었다

4. 박신화 교수의 지휘로 교가 제창을 하는 모습



2023 영원한 이화인 (1963년~1973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계재



이재민(국문 73)
전 강남구 구의원(3선),
현 강남구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영문 73)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동창회 임원 8년 역임



민용자(독문 67)
『미동의 수다』 고모노통신
(2022) 작가.
이화여대 독문과 1회 졸업생



양승희(사학 73)
SF 한의원과 전자반도체사업,
산호세라이온스 회장,
前 북가주 지회 동창회장
8년 역임



전방자(문정 64)
농협중앙회 도서관 사서 역임,
이대 인문과학대학 동창회장
8년 역임



김향신(문정 66)
전남대 문현정보학과 교수
역임, 현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 이사



이소영(사회 65)
홍콩 지회 및 사회학과
동창회장 역임,
현 성소신학교 이사



신승애(물리 63)
연세대 물리학 박사,
前 이화여대 물리학과 과장,
前 아시아교육봉사회 이사장



이종옥(화학 73)
광림교회 여선교회 총회장
역임



김성옥(생명 72)
현 (사)G.미래환경협회 회장,
대한민국정부 국민포장 수상



전혜수(피아노 73)

前 가천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
현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신난식(성악 73)

現 이을 수석부회장 및
이을 합창단장,
前 정신여고 동창회장,
Bel Vie 합창단장



김정숙(조소 71)

진산성지에 성모상 기증,
現 여송사회복지재단 회장



김영희(체육 67)

동래여고 교사 역임,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이화 ALPS) 제4기 수료



임학선(무용 73)

現 성균관대 명예교수,
문화석좌교수 역임



박혜경(유교 72)

동덕여대 아동학과 명예교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동창회
11대 회장



이영희(국제사무 73)

미국공인회계사,
미국 Marriott International
재직



임정애(의학 73)

강남메이저의원 원장,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외래교수
동작회 위원



김영순(보건간호 73)

West Anaheim Medical Center
Nurse, 남가주 저희 간호대학
동창회 위원



윤수진(임상간호 73)

Dental office(manager),
YWCA of Queen 의사 역임



김봉희(약학 73)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교장,
현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조여원(가관 73)

前 경희대학교 교수,
前 학교법인 경희학원
상임이사



박원옥(식영 73)

미국 미시간주립대 영양학
교수, 학장 역임





2023 올해의 이화인 (1989년 입학, 1993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계재



김정아(중문)
YTN 앵커



엄현진(영문)
전업주부



구은경(불문)
현 대한항공 커뮤니케이션
지원팀장(부장)



송원자(독문)
수원대 경영학부 교수,
자산관리처장,
회계사 외



강지나(기독)
New York New Jersey & 미주
한인상공회 총연합회 변호사



송미령(사학)
현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2008년~)



오유경(정외)
KBS 아나운서, KBSAVE 대표,
(주)갤러리 평창동 1번지
대표이사



임복희(행정)
연세대 법학박사,
前 연세대 로스쿨 객원교수 외
한국학 사서



이효경(문정)
워싱턴대학교 도서관
한국학 사서



서혜진(사회)
크레아스튜디오 대표,
방송 PD(〈미스트롯〉, 〈스타킹〉)
외 다수)



김린아(사복)

강동경희대병원 사회사업팀장,
前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혜석(심리)

현 CATAL까랄 대표디자이너
카페24(주) 총괄이사,
前 에이컴메이트(홍콩) 대표



송종선(수학)

카페24(주) 총괄이사,
前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생산공유 분과장



김혜주(통계)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생산공유 분과장



박형재(물리)

코카콜라(유) HR Culture &
Transformation 일본/한국
총괄상무



윤영지(화학)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
연구소 재직



이정원(컴공)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학과장



이지희(피아노)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국제피아노음악협회 이사



김내리(관현)

이화챔버오케스트라 수석,
광림교회 오케스트라 악장



정자영(성악)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Singing Actors 대표



심현아(작곡)

작곡가,
뉴욕주립대학교
(SUNY Buffalo) 작곡박사



안윤선(종음)

선희예술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종교음악과
졸업



김지연(동양)

화가,
(사)한국화진흥회 이사



허정원(서양)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학과 교수
(서양화 전공)



배윤주(조소)

전시기획자,
프로젝트스페이스 미움 대표



김미진(섬예)

(주)포도디자인 대표,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과
겸임교수 역임



진현경(생미)

파프리카디자인 대표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고동연(장미)

미술사가,
前 네마프 집행위원



장정은(도예)

(주)아이와이드플러스 신사업경영
사업부장/이사
前 축구 국가대표



안근희(체육)

대진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前 축구 국가대표



손미정(무용)

88서울올림픽 성화 최종
점화자,
예원학교 교사



최진영(초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
이대부속초등학교 교장



윤지숙(교공)

스카이라이프 중부기획팀 차장,
前 콘텐츠본부 VOD사업팀장



홍정아(특교)

서울대학교교부설초등학교
특수교사,
이화여대 겸임교수



김선희(영교)

YTN 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 팀장



신혜란(과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前 렌던대 교수



신한미(법학)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아동권의보호학회 회장)



배정아(경영)

이화여대 경영학 박사 수료,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외



양혜련(국제사무)

수원여대 교수,
(사)한국비서사무협회 부회장



김예진(의학)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진아(간호)

인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교육ODA 유공자 표창



김희성(약학)

의약품 심사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박정신(제약)

SK바이오팜 부사장,
FDA 혁신신약 개발 성공



권혜진(의직)

한복스튜디오혜온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외



김관지(식영)

이대목동병원 영양사,
이룸투어 이사



국립암센터 최고연구원·연구부소장 김용연 동창

“꿈이란 잠시 미룰 수는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2023년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일산 국립암센터로 향했다. 2001년에 문을 연 국립암센터는 국가 암 관리의 최고 연구·정책기관으로, 연구소와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등을 거느리고 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05년 국립암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시작해 현재 최고연구원이자 연구부소장을 맡고 있는 김용연(생명 87) 동창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1989년 모교에서 동물발생학으로 석사를 마친 김동창은, 결혼 후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위스콘신대학교로 유학을 결정한 남편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그때 임신 3개월차였다. 출산 직후 만 2년 동안만큼은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김동창은 잠시 손에서 공부를 놓고 육아에 ‘올인’ 했다. 대신 아이를 만 두 살까지 키운 뒤에는 반드시 학업을 다시 이어가리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학위를 끝내고 경제 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다. 김동창은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미국에 딸과 함께 남았다. 그러나 생면부지의 미국에서 어린 딸을 훌

로 키우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남편과 지낼 때는 그나마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 놓고 밤 9시에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마저 완료하고 실험보고서를 쓰다가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남편이 한국으로 떠난 뒤에는 그야말로 갖은 고행이 시작되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김동창은 “두렵고 막막한 날도 부지기수였지만, 견뎌야 하는 과정이라 여기고” 꾫꼿이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 서러움에 월칵 눈물이 쏟아져 “눈물 콧물에 젖은 뺨을 씹었을 만큼 고행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지만, 결코 학업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내분비생식생리학 및 생물분자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물론 박사후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다. 그후 한국에 돌아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BK(Brain Korea) 조교수를 거쳐 암 연구의 본산인 국립암센터에 자리를 잡았다.

어떤 동인이 김동창을 이처럼 벼텨내게 했을까? 위낙 일찍부터 생명과학자로서의 목표가 확고했던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김동창은 모교 학부에 입학할 때부터 이미 미래 진로에 대한 꿈이 확고했다. 그 확고한 목표가 지칠 때마다 그를 붙들어 주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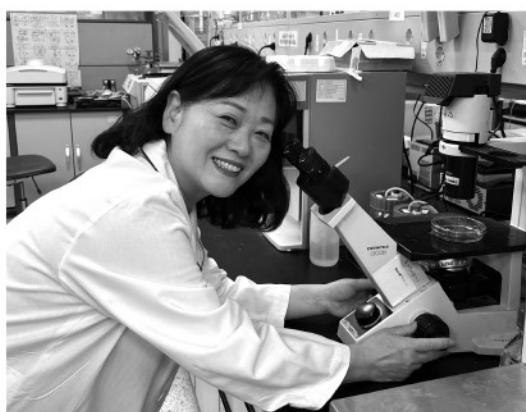
셈이다. 처음에는 의대를 갈까도 생각했지만 전 인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일을 하고 싶어 생명과학도의 길을 지망했다고 한다. “의사는 제가 살아 있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고쳐 주는데, 생명과학자는,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하거나 획기적 연구성과를 통해 전 인류와 미래 세대까지 살릴 수 있잖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모교 출신 선후배를 접하며 끝까지 할 수 있고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한 것을 들었다. “다른 학교 출신의 여성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대 출신들은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선배들이 해낸 것을 보고는 저도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멘티가 새롭게 멘토가 되는 선순환

여성 과학자 를 모델의 중요성과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몸소 실감한 것은, 김동창이 여성 과학자들을 위한 멘토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2007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이하 위셋)에서 멘토링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동창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현미경 관찰 중인 김동창



장관상 ‘올해의 멘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학 시절부터 자신이 받은 혜택을 어떻게든 사회에 환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김동창의 결심이 구체화된 것은 성차별이 딜한 미국의 교육제도를 접하면서였다. 김동창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당시 상대적 고령에도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성을 만나기도 하고, 여성 과학자 모임 ‘위민인사이언스(Women in Science)’ 홍보 포스터와 마주쳤던 것을 사소하지만 인상적인 경험으로 꼽았다. 그렇게 김동창에겐 “성별이나 나이 같은 제약 조건은 다 깨져야 한다”는 생각, “한국에 가면 우리 여성들이 과학계 리더로 성장하고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돋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위셋에서 멘토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모교의 최원자(생명과학과) 교수의 제안 덕분이었다.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찾던 김동창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멘토링 초기 멤버로 여성 과학자를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위셋의 멘토링은 유학 고민이나 제약회사 준비 등 여성 과학자로서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여성 예비 과학인에게 가이드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처음 몇 년은 모교 이공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전국의 여대, 나아가 남녀공학의 여대생들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이드를 해준 수많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중에는 김동창의 기억에 가장 남는 멘티들도 여럿이다.

평소 진로 계획에서는 진정성과 성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온 김동창에게 있어 유독 그 뜻이 빛나고 깊었던 멘티들이다. 한번은 연세대를 다닌다는 남학생으로부터 자신은 여대생이 아니지만

멘토링을 받고 싶다는 메일을 받고 흔쾌히 멘티로서 받아들였던 적도 있다. 또 의전원에 가고 싶다고 멘토링을 요청한 한 학생도 잊을 수 없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의료 행위와 환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사로서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을 중요하게 생각한 김 동창은, 의지가 확고했던 그 학생이 의사가 되면 좋겠다 싶어 멘토링은 물론 합격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희한하게 지금까지 내 멘티들 중에 의전원이나 약전원에 떨어진 학생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고 한다. 얼마 뒤에 그 학생이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김 동창에게 알리면서, “멘토님의 멘티 중에 떨어진 경우가 없었다고 해서 제가 떨어진 전설이 될까 봐 엄청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멘토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생각이 동기부여가 된 셈이죠”라며 웃는 김 동창의 얼굴에 학생에 대한 대견함과 뿌듯함이 엿보였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멘티는, 모교 생명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동물생태학을 연구하면서 제인 구달처럼 사는 것이 꿈이라던 멘티다. 김 동창은 그 멘티에게도 진로 실현에 관한 자신의 평소 소신, 즉 진정성과 성실을 강조했다. 몇 년 뒤 그 멘티로부터 자신이 인도네시아 밀림에 있다는 메일이 왔다. 김 동창이 이야기한 진정성과 성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금 그 멘티는 국립생태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멘토로서 보람을 많이 느껴요.”

또한 김 동창은 그 멘티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자리 잡으면서 또 다른 멘토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중이라는 점도 보람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멘토의 풀이 풍성해지고 세대도 다양해 지면서 좋은 점은, 학생으로서의 고민만이 아니라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한 멘토링 행사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고민, 커리어를 쌓아가는 여성에서의 고민도 함께 나누게 된다는 점, 그리고 초창기 멘토들로서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제가 일방적으로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순환에 의해서 저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 김 동창이, 사회 진출을 앞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지 궁금했다. 김 동창은 모교 선배로 아산병원 병리과의 최진(생명 86) 교수에게 조언을 구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답했다. “선배님이 ‘거기 있을 때 같이 점심 먹을 한 사람만 있으면 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조직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 맺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너의 일에 집중해라, 인간관계는 고민을 낸 놀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큰 도움이 된 말씀이었어요.”

또한 연구부소장과 한국세포생물학회장 등 좀 더 무게 있는 자리를 맡게 되면서 송준임(생명 70) 전 모교 생명과학과 교수로부터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격려와 함께 “중요한 것은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니 열심히 운동하라”는 조언을 들었던 일은 내내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한편 김 동창은 자신은 어느 조직을 가나 를 모델

을 찾아 그분을 닮으려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꼭 닮고 싶은 롤 모델로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장을 지낸 노정실(한국명 조정실, 의학 72) 교수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NCD 사무국장을 지낸 신해림(의학 81) 교수를 꼽는다. 마지막으로 김 동창은 꿈이란 잠시 미룰 수는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니 중도에 포기하지 말 것과, 멘티들에게 거듭 강조했던 진정성과 성실을 모교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암 전이를 해결하고자 연구에 매진

이처럼 오랜 멘토링 활동을 통해 모교와 사회에 봉사한 김 동창은 본업인 연구에 있어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암센터 유공 표창을 받은 국립암센터의 핵심 연구인력이다. 지난 2021년에는 한국세포생물학회장도 역임했다.

김 동창은 자신이 해온 연구에 대해 “한마디로 암 전이를 일으키는 ‘암세포 아노이키스(Anoikis) 저항성의 원인’을 찾는 연구”라고 대답했다. 아노이키스는 부착세포가 세포외기질에서 떨어질 때 세포자살(Apoptosis)에 의해서 죽는 현상이다.

“암 치료의 난관 중 하나는 암이 다른 주요 장기나 기관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암 전이가 암 사망 원인의 90%를 차지해요. 쉽게 말해 어떻게 하면 암 전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주제였어요.”

정상 상피세포는 콜라겐과 같은 세포외기질(ECM)에 붙어 있다. 그러나 세포가 부착성을 잃어서 ECM에서 떨어지면 세포자살이 일어나고 죽으면 사라지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다르게 아노이키스로 죽지 않고(아노이키스 저항성) 원발암에서 떨어져나와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떠돌다가 다른 곳으로 전이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김 동창은 설명한다.

한마디로 김 동창의 연구는 ‘왜 정상세포는 ECM에서 떨어지면 잘 죽는데 어떤 암세포는 떨어져도 안 죽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 발현, 어떤 단백질이 이걸 조절할까?’를 연구하게 된 것이다.

“그 기전에서는 파이브로네틴(Fibronectin)이라는 결합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 연구에 의하면 정상 세포는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 이 단백질을 만들지 못해서 그대로 사멸하는데 암세포는 원발암에서 떨어져 나가도 이 단백질을 빨리 만들어서 살아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없애기 위한 연구, 아노이키스 저항성을 깨뜨리는 물질을 찾는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하고초’라는 허브 식물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해서 암세포에 처리했더니 아노이키스가 일어났어요. 이런 발견으로 특허를 받았죠.” 이러한 연구 성과와 사회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에는 과학의 날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최근 김 동창이 야심차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암세포와 ‘페로토시스(Ferroptosis)’로 불리는 철 매개 세포 사멸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원래 신체는 철을 함부로 흡수하지도, 다 잊지도 않도록 철을 아주 잘 조절한다.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철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산화반응에 의해 활성산소(ROS)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암세포 내에서 다량으로 발생한 활성산소는 암 세포를 손상시켜서 세포사의 일종인 페로토시스를 유도한다. 쉽게 말해 ‘어떻게 하면 암세포를 페로토시스에 민감하게 만들까’가 연구 주제인 셈이다.

이처럼 꼭 필요하고도 빛나는 연구들을 해올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대학 시절부터 연구를 향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김 동창의 의지와 인내, 그리고 김 동창 자신이 무엇보다 강조했던 진정

성과 성실의 힘이 있었으리라. 김 동창의 연구도, 사회봉사 활동도 더 많은 빛나는 성취를 이루어 내길 성원한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빛나는 이화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 동창

빛나는 이화인을 더욱 밝게 비춰준 '이화'라는 베풀목



“한국어의 전 세계적 블에 제가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스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뛰어들고자 하는 저의 일탈에 지도교수인 차현실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교육학이라는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하라. 앞으로의 세상은 다를 것’이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문적 부흥은 물론 한류 블조차 일기 전인데 ‘한국어 교육학’이라는 분야로 첫 임용 공고를 낸 모교의 결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영광입니다.”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 소감을 밝힌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국문 88) 동창. 원석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 준 스승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준 든든한 베풀목 이화에게 감사를 전하는 이 동창의 수상 소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빛나는 이화인’의 뒤에는 그 빛

을 더욱 밝게 비추는 이화인 그리고 이화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어 교육, 새로운 응용 분야를 향한 도전

“고등학교 시절, 양주동 선생님의 향가 해석을 배웠을 때였죠. 그 설명이 무척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말 조각의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강력한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말의 조각을 분석하고 담화공동체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해내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호기심 천국’이라는 이 동창의 별칭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다. 궁금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강점이 국어국문학을 선택하게 했다. ‘시작은 문학작품에 나온 우리 옛말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달려간 곳은 외국인 가득한 교실’이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강의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한 문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학생들의 얼굴은 무언가 부족해 보였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드라마도 보면서 재미있게 소통하려는 것인데 총 족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해영 동창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질문하는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그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했다. 수많은 서적과 논문을 읽으며 공부했다. 외국어 교육에서는 실용적인 교육 문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 목표에서 한국어 활용 습득 연구에 천착했다. 재미가 있었다. 궁금증들이 풀려가는 과정이 학문적 몰입을 이끌어냈다.

외국어로서는 한국어 교육이 초창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행보는 당시로서는 일탈이었다. 한국어 교육은 연구자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석·박사 과정을 밟은 촉망받는 기대주가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진로도 보장받기 어려웠던 한국어 교육에 매료되었으니 주변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동창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알려주는 일을 소명처럼 여겼다. 한국어를 배운 외

국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각 국가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기를 기대했다.

일탈에서 시작, 정상궤도로의 진입

지도교수는 ‘네가 사는 세상은 바뀔 것’이라며 존중해 주었다. 스크랜튼 여사가 조선인다운 조선인 여성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독교 사상을 모태로 한 이화학당을 세운 것처럼.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 같은 이해영 동창의 열정을 이화도 지원했다. 2000년 모교 한국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대내외의 유관 기관장을 역임하고 2021년 세종학당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까지 이 동창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몰려드는 연구를 마다하지 않았다. 한국은 물론 세계로 지평을 넓혀갔다. 30여 년 동안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집필, 교원 교육, 한국어 교육 보급에 몰두했다.

“세종학당에 오기 전까지 이화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여성으로 출발한 이화잖아요. 온갖 역경을 헤쳐나간 스크랜튼 여사의 교육철학은 제게 울림이 컸어요. 부족하지만 닳고 싶었죠. 태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처럼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고 싶다면서 이화를 찾았어요. 큰 포부를 품은 학생들에게 이화의 역사를 알려줬어요. 진정한 태국인, 베트남인이 되어 귀국하고 당부하면서 말입니다. 가장 태국인다운, 베트남인다운 이화인으로 큰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죠.”

한국어 교원 양성은 한국의 열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하는 이 동창.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를 이끌어냈다.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제자가 외국인까지 포함해 25명에 이르는 것만 보아도 그 영향



력을 짐작할 수 있다.

“제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교수인데 그들이 성장해서 연구소 소장, 부학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죠. 이화 재직 당시 해외 인턴십을 개발하여 교과목을 만들었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 인턴십을 경험한 학생들이 졸업 후 현지에서 취업해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성장했어요. 또 이화가 배출한 태국 왕립풀라통콘대학교의 수파핀분룽 교수와 씰라빠꼰대학교의 씨리낫씨리랏 교수는 태국의 한국학을 이끄는 대들보이기도 해요.”

한류 열풍과 함께 뜨거워진 한국어 교육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다양한 모습이 이슈를 만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역사의 나라’ 아랍에미리트에서 ‘2023 중동 아프리카 세종학당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석한 17개국 20개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과 현지의 한국어 교육 관계자 180여 명. 일반시민은 물론 왕족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열기는 대단했다.

한국어 교육과 문화를 알리는 대표 브랜드이자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은 84개국 244개소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미래 매체기술을 활용한 교육으로 한국어 교육 플랫폼 전환을 견인하고자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를 구축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수강생은 70만여 명에 이르며, 지난 해에만 11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초기 대비 160배로 성장한 결과물이다. 그 중심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영 동창이다. 취임 2년 만에 놀라운 행보이다.



2023 중동아프리카 세종학당 워크숍

“한국어를 배운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류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이 자신의 문화를 기반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소통의 도구로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문가로 성장해 가면서 서로의 문화를 진정으로 주고받는 것에요. 근거 없는 문화적 우월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상호문화주의가 단단하게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는 한국어로 소통하고 문화를 주고받으며 친한(親韓)의 정서를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해영 동창. 불모지였던 한국어 교육이 이제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무모하기까지 했던 이화인, 이 동창이 품은 젊은 날의 꿈이 결실을 맺고 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며, 이화의 한국학과 교수로서 심었던 겨자씨가 어느덧 튼실한 나무로 성장한 것이다. 마음 깊이 간직하며 설계해 둔 한국어 교육의 청사진, 한국어로 세계 현지인들, 전문가들이 한국인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상식 날, 첫 제자부터 첫 제자의 막내 제자까지 수상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도교수님께 감사 전화를 드리니 ‘내가 선생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있어 가능했다’고 하시더군요. 최고의 칭찬이고 설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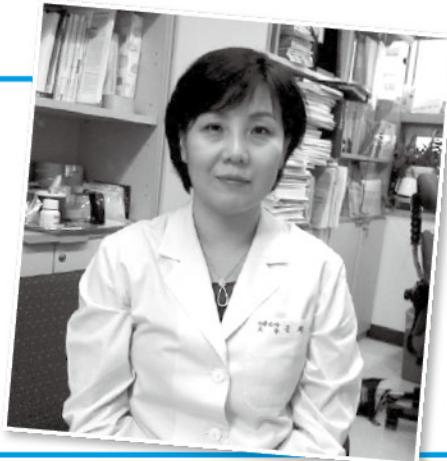
는 말씀이죠. 앞으로 한국어 교육학이 학문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경을 초월해 연구자 간 동역자가 되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글·최정은(커미부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빛나는 이화인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문혜성 동창

인고의 시간이 만든 최초, 최고의 수식어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은 문혜성(의학 88) 동창에게 2023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산부인과 전임 의가 된 지 30년이 된 해를 돌아보게 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죠. 일기장에 슈바이처와 같은 봉사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썼어요. 담임선생님께서는 그 글 아래 빨간색 밑줄을 긋고 응원 글을 적어주셨죠. ‘혜성이네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다. 믿는다.’ 벌써 50년이 흘렀지만 그 결심은 변하지 않고 제 삶의 중심을 지켰어요.”

어린 문혜성은 서예에 탁월한 재주를 보여 이미 초등학생 때 국전 작가들과 전시회에 참여한 바 있었다. 청소년의 문혜성은 그림 실력이 뛰어나 미대 진학을 추천받기도 했다. 독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는 독어독문학을 전공하라고 권유한 적도 있었다. 청년 문혜성은 체계적인 법학에 매료되어 의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시험을 볼까 생각하기도 했

다. 모두가 잠시 스쳐가는 유혹, 문 동창에게는 의사로서의 진로가 천직 같았다. 그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수많은 여성의 생명을 살렸다. 부인종양학분야의 세계적 명의로 우뚝 섰다.

인고의 시간이 만들어낸 성공의 경험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문혜성 동창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고’이다. 역시 그냥 얻어진 영광이 아니다. 드러나지 않은 인고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정체이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모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전임의 자격으로 다른 대학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화를 무시하는 그들에게 지고 싶지 않았죠. 남들보다 두 배, 세 배의 노력을 했어요. 면역학을 공부할 때였는데 온갖 자료를 뒤져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결

국 저보고 ‘그만 좀 하라’고, 저 때문에 ‘교수에게 비교 당하면서 매번 혼이 난다’는 거예요.”

의료계 역시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어린 딸을 시부모님께 맡기고 의사로서 오롯이 헌신한 시간들을 깡그리 짓밟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교수직을 그만두고 개업을 할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혼들릴 때마다 문동창을 잡아준 것은 환자들의 간절한 눈빛이었다.

수술이 좋아 선택한 산부인과 부인종양학

인턴, 레지던트 시절 ‘수술방만 들어가면 표정이 밝아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외과를 좋아했다’는 문동창. 환자의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외과와 내과적인 중첩이 많은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는 수술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자청해서 수술방에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교수님들의 집도를 보면서 다음에는 어떤 기구를 쓸까 눈여겨보았죠. 가끔 간호사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은 제가 간호사를 해도 완벽하게 했겠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그건 다음 장면에서 어떤 기구를 쓰겠구나 짐작하면서 맞춰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수술 비디오를 보고, 셀프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수술. 그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열망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되었다. 하지만 매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주변에서 늘 환영하는 만도 아니었다. 시기와 질투를 받는 순간도 있었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 여긴 문동창. 2003년 40대 초반, 심기일전이 필요했다. 미국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로 연수를 신청했다. 의대 교수가 대학이나 병원이 아

닌 의료연구기관의 펠로우로 간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세계 의료계의 석학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문동창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싶었다. 의료시스템도 궁금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세 가지의 목표를 말했죠. ‘첫째, 제가 할 수 있는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을 습득하고 싶다. 둘째, Impact Factor 10 이상 SCI 논문을 쓰겠다. 셋째, 영어로 강의를 하고 싶다’였어요. 그렇게 당차게 포부를 말한 제가 너무나 당연히 성공했어야 할 실험을 망친 거예요. 마침 그 기관에 있던 모교 후배의 도움을 받아 수습은 했지만 난감했어요. 그때부터 문지기가 되었어요. 가장 먼저 출근했지요.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 한 사람이 있으면 자청해서 실험을 맡았어요. 알람을 맞추고 동시에 3개의 실험을 돌린 적도 있었지요. 어느 순간부터 연구원들이 호의적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상사 역시 저를 지지해 줬어요.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겼어요. 심지어 월급까지 챙겨주더군요. 날로 기량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NIH 생활은 그녀를 탈바꿈시켰다.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올 때 상사는 문동창이 사용하던 실험실 기구들을 가지고 귀국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자궁경부암 연구를 할 수 있는 실험기구였다. 천군만마

로봇 수술 기기 앞에서



를 얻은 것 같은 기분으로 입국했다. 공항 도착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가, 실험기구들을 정리하고서야 집으로 향했다는 문 동창.

단일공 로봇 수술 건수 세계 1위

우리나라에 복강경 수술이 도입되던 초기였다. 2009년 12월, 자궁에 38cm의 거대 종양을 가진 20대 여성이 문 동창의 진료실을 찾아왔다. 여러 병원을 거쳐 왔는데 가슴 밑부터 배꼽 아래까지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큰 흉터가 남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문 동창은 가장 자신 있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권했다. 당시만 해도 구멍 3개 혹은 4개를 뚫어 내시경과 수술 기구를 배 안에 넣어 종양 조직을 조각낸 후 꺼내는 기술이 최선이라고 여길 때였다. 이미 문 동창은 배꼽을 통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최초로 개발한 후였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성공리에 끝났다. 흉터가 거의 안 남는 단일공 수술은 환자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세계 학회에 거대 종양에 대한 단일공 수술 첫 성공 사례로 보고됐다. 이후 문 동창은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세계적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환자들의 치료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수술 시간과 회복 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합병증도 줄였다. 흉터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서예, 미술 등에 재능을 보이던 문 동창의 내재된 창의성이 의료 기술과 접목하면서 기술의 혁신을 거듭했다. 공간 감각이 뛰어났던 문 동창은 로봇 수술 도입을 시도했다. 로봇 팔이 들어가는 공간을 계산하고 수술 부위의 상태를 고려해 성공을 거듭했다. 단일공 로봇 수술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전 세계에 단일공 로봇 수술 방법을 교육하고 보급해 왔



로봇 수술 국제 심포지엄 현장에서 문 동창

다. 덕분에 현재 이화의료원은 단일공 로봇 수술 건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입학식 날, 어머니는 당시 정의숙 총장님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화의 인재로 딸을 키우고 싶다면 공부하느라 밤 12시에 들어오는 딸을 규제하지 말라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부모님, 딸아이까지 제가 의료인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가는데 묵묵히 기다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이화는 늘 저를 품었어요. 대학 시절, 새벽부터 밤중까지 도서관에 제 지정 자리가 있을 정도로 파묻혀 있었거든요. 가끔 학교 잔디밭에 벌러덩 누워서 쉬고 있으면 꼭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이화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죠.”

‘자기 분야에서 이화를 빛내고 있는 동창을 대표하기엔 모자라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화인으로서 자부심과긍지’를 갖고 있기에 그 사랑을 이제는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문 동창. 그녀의 얼굴에서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어린이 문혜성이 오버랩되면서 환한 빛이 퍼져 나온다.

글·최정은(커미부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주요 사업과 소식 공유 나눔과 배려의 이화 정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



총동창회는 4월 27일(목) 오후 12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줌(Zoom)이 아닌 대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과 이경숙(영문 70)·남상택(물리 74) 고문, 총동창회 임원 및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고, 모교에서는 김은미(사회 81) 총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올 한 해 동안 수행될 총동창회의 주요 사업에 대해 알리고, 각 과, 대학(원) 및 국내 지회

의 소식을 공유하며 이화 동창들의 유대를 확인하고 이화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이다.

김경령(수학 84)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의 기도와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김은미 모교 총장의 모교소식, 제18대 총동창회장을 지낸 남상택(물리 74) 고문을 위한 감사패 증정, 2023년도 사업계획 보고, 참석자 소개 및 각 과, 대학(원), 국내 지회 활동 현황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로에게 축복과 위로, 격려를 보내자”

이 자리에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팬데믹 비상



이명경 총동창회장



김은미 총장

사태 선포 이후 3년여 만에 소중한 이화 동창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호흡하며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반갑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2023년은 이화의 창립 137주년이 되는 해이자 총동창회로서는 115주년이 되는 해인데 ‘누군가가 그늘에서 쉼을 얻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면서, 선배들이 이화와 총동창회를 향해 쏟은 사랑과 관심이 이타적 돌봄과 섬김 그리고 나눔과 배려의 통로가 되어 이화의 계보를 이어간다고 생각하니 새롭게 큰 감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가 서로에게 축복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 참된 쉼과 소중한 선물로 자리매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이화가 가는 길, 뜨거운 사랑과 지원 부탁

이어 김은미 총장이 2021년도 5월 이후 추진 중인 ‘Ewha Vision 2030+’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모교의 주요 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미 총장은 연구중심대

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Ewha Vision 2030+’의 첫 번째 목표라고 밝히고 이화가 선도하고 연구 역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10여 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29일(수)에 열린 ‘제19회 김옥길 기념강좌’ 심포지엄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김은미 총장은 이화 비전의 두 번째 목표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소개하고, 그 일환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사업에서 이화가 탁월한 강좌 개발 역량과 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을 알렸다. 김은미 총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K-Mooc를 통해 이화의 동창들 모두가 졸업 이후에도 이화의 우수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은미 총장은 2036년에 맞게 될 ‘이화 1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교사 문헌 발굴 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남상택 고문(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각 과와 대학(원), 지회 소식을 전하는 동창들

이와 함께 김은미 총장은 캠퍼스 미래화 사업의 진척 상황을 소개했다. 먼저 학관 재건축과 리모델링 작업은 1학기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2학기부터 새롭게 재탄생한 학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음으로 생활환경관과 헬렌관의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두 건물에 대한 건축 공모안이 결정될 것이고 이번 창립 기념식 때 결정된 설계공모안에 대해 동창 여러분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2023 사업계획 동창들과 공유

다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동창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 제18대 총동창회장 남상택 고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이화 동창들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어 총동창회의 2023년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김경령 총무는 이화 창립 137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찬양예배’와 ‘창립 137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각각 5월 9일(화)과 5월 31일(수)에 진행될 것이라고 공지하고,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빛나는 이화인’, ‘영원한 이화인’ 그리고 ‘올해의 이화

인’ 추대와 합창 경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렸다. 하반기의 주요 사업으로 9월 14일(목)에 ‘동창회 기금마련을 위한 대바자’와 10월 14일(토)에 ‘제9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2023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는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참석해 북미 지역 이화 동창들의 활동과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27일(월) ‘이화인의 밤’과 12월 7일(목) ‘이화가족 성탄예배’ 일정을 공지하고, 연회비·평생회비 납부회원 배가운동, 후원이사 중원, 모교발전기금 모금 등이 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동창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동창회관(이화·삼성교육문화관) 1층의 ‘황화방’을 리모델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활기 찾은 각 동창회 및 지회

각 과, 대학(원) 동창회 및 국내 지회 보고에서는 참석한 동창들 모두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랜만



총동창회 고문 및 회장단이 동창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교가 제창을 하는 모습

에 대면으로 진행된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을 표하고 소식을 알렸다.

생활환경대학 박경임(식영 73) 부회장은 올해 “생활환경대학 50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 행사가 계획돼 있다”고 알리면서 이날 행사를 위해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창들이 많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축하와 성원을 부탁했다. 약학대학 박병희(약학 84) 회장도 “약대 동창회도 올해 60주년을 맞아해 10월 총회 때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음악대학 정소희(작곡 89) 회장은 ‘이화뮤직페스티벌’이 5월 26일(금)과 6월 8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올해 졸업 30주년을 맞은 동창들과 함께 성공적인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이고 2025년도 음악대학 100주년을 대비해 그동안 쌓아온 여러 자료들을 아카이브화하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학과 문 온(수학 87) 회장은 “올해 수학과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9월에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고, 영문과 홍성미(영문 78) 회장도 “영문과가 2025년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소과 김양선(조소 94) 동창은 “조소과에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약 120여 명의 졸업생들로 구성된 ‘이화조각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2024년에 ‘이화조각회’가 40주년을 맞는다”고 말하며 “내년 행사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인문대학 안영호(중문 85) 회장은 “노후를 행복하고 멋지게 보내는 인문대 동창회가 되기 위해 몇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안 회장은 “영문과 주최로 ‘영문학 기행’을 준비 중인데 다른 과에서도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지회 황순자(교육 69) 회장은 “대전 지회에는 ‘이화코러스’라는 합창단이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어서 별도의 동창회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동창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 지회와 ‘이화코러스’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전했고, “대전에는 ‘이화코러스’가 있다!”라고 외쳐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사회과학대학 이해경(정외 88) 회장은 “시니어 여성 축구단을 만들어 축구단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약 30명의 축구단원 가운데 70퍼센트가 이화

동창”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축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장식미술과(공간디자인전공) 이승언(장미 91) 회장은 “학과 개편이 되면서 장식미술학과가 디자인학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뀐 학과, 전공 소속으로 졸업한 후배들과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장식미술과(패션디자인전공) 하승연(장미 94) 회장도 “우리 과도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으로 이름이 변경됐는데 장식미술과라는 이름이 없어져서 아쉬움은 있지만 총동창회 행사에 참석해 선배들을 만나고 보니 다시금 모교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과대학 임선영(의학 82) 회장은 “의과대학 동창이 총 4,700여 명이고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이 이화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감사를 전하면서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있는데 오늘 잠시 병원 문을 닫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해 참석한 동창들로부터 따뜻한 웃음과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간호대학 변은경(간호 83) 회장은 “이화를 졸업한 이후 평생 이화의 그늘 아래서 이화와 떼놓을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동창회 임무를 맡게 되어 감사하고 임기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문헌정보학과 김노미(문정 88) 회장은 “훌륭한 선배들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동창회의 역할과 사명이라고 여긴다”고 말하면서 “회장직을 맡은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영문 70) 고문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화대학은 알면 알수록 궁지가 생기는 곳”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경숙 고문은 “모교의 역사와 뜻깊은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고 스크랜튼 선생님과 당시 선교사들의 눈물겹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동창들의 제안 세심히 경청하고 적용할 것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시대적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하며 “총동창회의 연간 사업계획안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동창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총동창회 임원들은 동창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세심히 경청하고 적용해서 총동창회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다 함께 교가 제창을 한 뒤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2023년 각 과, 대학(원) 동창회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창들은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과일과 샌드위치를 함께 나누며 환담의 시간을 가졌고, 모교에서는 오랜만에 재개된 대면 회의를 축하하며 차 세트를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전했다.

글·이미란(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음악 연구에 대한 열정, 음악학 학풍의 기틀을 마련한 나의 스승



2022년 4월 29일(토), 한복 입은 최승현 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저는 최승현 선생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첫 제자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해인지는 모르는 5월 3일,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선생님 연구실에 들어서자 선생님은 “5월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일이네”라는 말씀으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지고 계셔서 그 당시 학부생이었던 저는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얼른 피아노 앞에 앉아 책을 펼쳤는데, 레슨이 끝나고 이 말씀이 다시 떠올라 혼자 한참을 웃고 이후 동기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최대 유머라면 서로를 쳐다보고 또 얼마나 웃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5월 3일은 매년 돌아왔고 올해도 5월 3일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늘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즐거웠던 기억이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난 3월 21일(화), 평생 연구에 매진하고 교육에 헌신한 최승현 선생님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며 저는 슬픔과 함께 상실과 절망의 감정까지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는 피아노 전공과 음악학 전공의 지도교수님이자, 제 인생의 거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과거의 음악이 과거에만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느꼈을 정서까지도 음악에 담겨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과거의 음악을 연구하고 연주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늘 생각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더불어 옛 음악을 발굴하여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현재성을 떠며 우리에게 전해지는 감격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즉 음악을 통해 역사와 현실을 연구하도록 하셨음은 물론,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후세대에게 음악 연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실천을 통해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아니 퇴임 후에도 늘 ‘이화 역사의 한 부분을 함께한 것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이화 음악대학의 역사는 한국 음악교육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화 음악대학은 우리나라 음악교육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승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성품상 자신의 업적과 수고를 알리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학자적인 삶을 사셨던 선생님이기에, 미처 선생님의 지나온 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맘을 아프게 만듭니다.

다시, 5월이 되었지만 이제 선생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며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최선의 삶을 사셨던 그 모습을 이제 곁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동안 저는 무엇을 한 것인지 자책감이 들지만, 선생님의 연구와 교수철학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저도 선생님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오르기 힘든 경지를 품고 계셔서 제가 밟아온 학문의 여정은 부족하기 짝이 있지만, 학자의 양심과 도덕, 태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선생님께 교육받았고, 이를 실천해 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5월에’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에 나오는 하이네 시의 첫 구절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5월인데,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신록이 무르익어 갈수록, 캠퍼스가 울창해져 갈수록 저는 선생님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대강당 옆 자목련 이야기도, 중강당이 음악관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도, 음악도서관을 만들던 이야기도 더 이상 들



잡지 《여원》 1963년 5월호 '스승과 그 제자'에 소개된 최승현 교수(왼쪽). 유학을 떠나기 전, 김영의 학장의 조교 시절 모습이다

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만날 수 없다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직 인정할 수 없지만, 어느 곳에서나 선생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앞으로의 이 세월을 견디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2006년 퇴임 시 학보사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에게 “열정과 힘찬 도전을 마음껏 펼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유지에 따라 언제까지나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선생님의 영원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글·신혜승(피아노 94)

*고 최승현 교수는 이화여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미국의 이스턴일리노이대학교(Eastern Illinois University)와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석사학위(M.A., M.M.)를 받고, 위스콘신대학교(University Wisconsin-Maison)에서 음악학 전공으로 1974년에 박사학위(Ph.D.)를 취득했습니다. 최승현 교수의 박사학위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졸업생 최초의 박사학위이자 한국 여성 최초의 음악학 박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화여대 음악대학 학장, 한국음악학회 회장, 이화여대 음악연구소 소장, 공연예술대학원의 전신인 실용음악대학원의 초대 원장을 역임한 고 최승현 교수를 기리며 제자가 보낸 글입니다.

총동창회 소식

— 1 —

남상택 전 회장, 고문으로 추대 네덜란드 지회 정식 승인

2023년 4월 정기 임원회가 4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지난 3월에 열린 정기총회 평가와 함께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간담회, 초청 감사찬양예배, 동창의 날 행사 등 상반기 주요 행사 및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정기총회에 대해서는, 개회와 폐회 예정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오

랜만에 개최된 대면 총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한 탓에 공간이 다소 비좁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5월 31일(수) 동창의 날 행사를 순서를 안내하며 1부 기념식에서는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졸업 50주년 및 30주년 동창 재상봉 행사가 있고, 2부에서는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이 있으며, 3부 합창 경연이 오랜만에 재개된다고 알렸다.

기타 안건으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네덜란드 지회의 지회 승인 요청이 있음을 알리고, 총동창회 정관 23조에 의거, 정회원 30명 이상이 되고, 24조에 의거, 지회 창립총회 회의록, 지회 회원 및 임원 명단, 회칙이 준비되었을 경우 지회 승인 가능하다고 임원들에게 보고하였다. 임원들은 네덜란드 지회에서 보내온 발족식 회의록과 임원 명단 등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으며 현재 47명의 동창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네덜란드 지회를 전체 박수로 정식 승인 의결하였다.

또한 남상택(물리 74) 전 총동창회장의 고문 추대 건이 상정되었다. 고문은 5명 이내로 구성 가능하며, 총동창회 회칙 제7조 5항에 고문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임원들에게 의결을 부탁했고 전체 박수로 추대가 의결되었다.

— 2 —

2023 ‘영원한 이화인’ 및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



대면으로 열린 4월 정기 임원회에 모인 임원들

총동창회는 4월 8일(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각각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 참석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호)에서 2023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을 가졌다.

먼저 오전 11시, 졸업 50주년 동창들을 대상으로 총동창회가 지난해 처음 마련한 '영원한 이화인' 추대 발대식이 열렸다. 각 과를 대표해 선정된 '영원한 이화인'과 이명경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곽은아(한음 85) 부회장, 임진(작곡 72) 이올 연합회 회장, 이정화(독문 74) 이올 연합회 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올 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에서 주도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배워온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온 열매로 이 자리에 선 것"이라며 참석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임진 이올 회장은 "김옥길 선생님 이, 새 시대의 총명한 여성이 뭉쳐서 하면 안 될 일 이 뭐 있겠느냐 하셨는데 이는 이올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 같다"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참석자들은 최은영(물리 87) 이올 총무의 영상 소개로 이화와 이올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김곡미(생미 87) 이올 사업부장이 향후 이올 일정 안내 및 이올 내 8개 동아리 현황을 소개하자 흥미를 갖고 경청했다.

이어 참석자들 소개가 이어졌다. 농협중앙회 도서관 사서로 근무한 전방자(문정 64) 동창을 시작으로, 전남대 교수를 역임한 김향신(문정 66) 동창,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민(국문 73) 동창, 성소신학교 이사 이소영(사회 65) 동창, 딸 둘을 이화 졸업생으로 키운『미농의 수다, 고모노 통신(2022)』 작가 민용자(독문 67) 동창, 영문과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저소득층 아이들 도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영숙(영문 73) 동창, 환경공학 박사이며 (사)G.미래환경협회장 김성옥(생명 72) 동창, 모교 물리학과 교수로 봉직하며 아시아교육봉사회 이사장을 지낸 신승애(물리 63) 동창, 한국 창작춤을 알린 성균관대 명예교수 임학선(무용 73) 동창, 동덕여대 명예교수 박혜경(유교 72) 동창, 광림교회 여선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이종옥(화학 73) 동창, 충남대 약대 교수를 역임한 김봉희(약학 73) 동창, 경희대 교수를 역임한 조여원(가관 73) 동창, 강남메이저의원 원장 임정애(의학 73) 동창 등의 자기 소개가 이어질 때마다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현장에는 14명이 참석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양승희(사학 73) 동창은 줌으로 참석했다.

한편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졸업 30주년 동창 중 각 과를 대표해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 45명의 추대 발대식이 열려 엄현진(영문 93) 동창 등 31명이 참석했다.

회계사이자 수원대 교수 송원자(독문 93) 동창, 전 축구 국가대표이자 이화여대 여자 축구단 창설 주역인 대진대 교수 안근희(체육 93) 동창, 아주대 교수 이정원(컴공 93) 동창, 삼성서울병원 의사이자 성균관 의대 교수 김예진(의학 93) 동창,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허정원(서양 93) 동창,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특수교사 홍정아(특교 93) 동창 등 교육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다. 또한 YTN 앵커 김정아(중문 93) 동창, KBS 아나운서 오유경(정외 93) 동창, YTN 시청자센터커뮤니케이션 팀장 김선희(영교

93) 동창, 스카이라이프 중부기획팀 차장 윤지숙
(교공 93) 동창등 연론계 동창들도 다수 있었다.

이밖에도 대한항공 부장 구은경(불문 93) 동창, 전 연세대 로스쿨 객원교수 임복희(행정 93) 동창,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을 역임한 김린아(사복

93) 동창, 카페24 총괄이사 송종선(수학 93) 동창, 한국/일본 코카콜라 총괄상무 박형재(물리 93) 동창,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연구소에 재직 중인 윤영지(화학 93) 동창, 국제피아노음악협회 이사 이지희(피아노 93) 동창, 이화챔버오케스트라 수석 김내리(관현 93) 동창, 작곡가이자 뉴욕주립대 박사 심현아(작곡 93) 동창, 작가이자 전시기획자 배윤주(조소 93) 동창, 포도디자인 대표 김미진(섬예 93) 동창, 파프리카디자인 대표 진현경(생미 93) 동창, 미술사가 고동연(장미 93) 동창, (주)이와이드플러스 신사업경영 사업부장 장정은(도예 93) 동창, 회계사 배정아(경영 93) 동창, 이름투어 이사 김관지(식영 93) 동창 등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동창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줌으로는 워싱턴대 동아시아 도서관 근무중인 이효경(문정 93) 동창, 5명 자녀를 둔 다둥이 엄마이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한미(법학 93) 동창, 뉴저지주 변호사 강지나(기독 93) 동창, SK바이오펌 부사장 박정신(제약 93) 동창이 참석해 열기를 보탰다.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



졸업 후 각자의 자리에서 이화의 이름을 빛내며 일하고 있는 동창들은 전문가로, 자애로운 주부로, 철학과 미학이 있는 엄마와 아내로, 지혜를 찾아 살 아온 여성으로서의 삶을 격려하고 따뜻한 박수를 보내며 우의를 다했다.

3

동창의 날 행사 세부 논의

2023년 5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5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김경령(수학 84) 총무가 참석 28명, 위임 12명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찬송가 21장을 반주에 맞춰 각자 부른 후 조선영 선교부장의 기도로 2023년 5월 정기 임원회를 시작했다. 이한나(기독 90) 서기가 2023년 4월 정기 임원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김경령 총무가 2023년 4월분 회계 보고를 하였으며 각각 동의와 재정을 받은 후 통과되었다.

안건 토의 주제로, 4월 27일(목) 개최된 각 과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와 5월 9일(화) 개최된 감사찬양예배 평가가 있었고, 5월 31일(수) 열릴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해 진행상황 보고와 함께 당일 임원들의 역할 분담까지 세세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올해의 이화인(23기)'으로 추대된 동창 중 6명이 불참하고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된 23명 중 1명이 미국 거주로 불참한다고 알렸다.

한편 '올해의 이화인' 중 몇 명은 양장예복을 입을 예정이라며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추대식은 한

은주 부회장이 준비를 총괄하며 이정화(독문 74)·정은실(경영 88) 감사가 도울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임원들에게는 행사 당일 오전 11시 30분까지 대강당에 모여 기념품(2,000개)을 포장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기념품은 대형 타올 및 총장이 제공하는 다과이고, 사회적 기업 ‘오티스타’에서 디자인한 타포린 소재 가방에 기념품을 담아 배부한다고 알렸다.

한편 정기 임원회의를 격월로 대면 회의와 줌 회의로 진행하는 방법을 건의한 임원이 있었는데, 비상시에는 줌으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임원회의는 대면이 원칙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서 애교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음대 정소희(작곡 89) 회장은 이화뮤직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자연대 황복기(화학 83) 회장은 “선배와의 만남 특강을 개최했는데 학생들이 140명 참석했고, 특강 후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98%에 달했으며 앞으로 동창회 활동을 하겠다는 학생이 83%가 됐다”고 알렸다.

약대 박병희(약학 84) 회장은 “동창의 날 합창 경연 상금을 연습 장소 대여비, 지휘자 수고비 등을 고려해 현실화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의대 임선영(의학 82) 회장은 “의대 19회 50주년 홈 커밍 행사를 가져 미국에서 18명이 지난 5월 2일(화) 방문했고, 42회 30주년 동창 27명이 모교 방문 행사를 가졌는데 각 8,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을 모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다”고 알렸다.

이어 안건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먼저 동창의 날 행사에 수고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대규모로 식사할 장소가 없어 오찬 행사를 못했다”며 “식탁교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내년에는 공간이 마련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품 내용이 실용적이라 좋았다는 의견과 함께 기념품 나눠주는 시간을 명확히 정해서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올해의 이화인’이 대강당에서 앉은 자리가 낮아 앞에 앉은 ‘영원한 이화인’에 가려져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예년에는 ‘올해의 이화인(올이)’과 ‘영원한 이화인(영이)’이 합창 경연이 끝날 때까지 단상 위에서 행사를 지켜보았는데 올해는 합창 경연 이전에 모두 아령당으로 이동해 실내가 다소 어수선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행사 준비팀에서 평가회의를 가졌었는데, 오늘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언급

— 4 — 상반기 임원회 마무리 및 하반기 주요 일정 공지

2023년 6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35명(위임 5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정기 임원회가 개최되었다.

각 대학(원) 보고에서, 공대 김미영(컴공 85) 회장은 모교에 인공지능대학이 신설돼 컴퓨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가 인공지능대학으로 옮겨진다며 공대 동창회도 소속 과가 변동될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간호대 변은경 회장은 “5월 31일 열린 간호대 총회에서 미국 거주 8회 동창이 10억을 기부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미국 거주 15회 동창(73세) 8명이 방한해 간호대 건립기금을 후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변 회장은 “해외 동창들에게 기금을 걷을 때 외에도 평소에 모교 소식을 자주 전해

됐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날 따로 전야제 형식으로 학창 경연을 열자는 제안도 있고, 내년엔 영이, 올이, 학창단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하였다.

이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하반기 주요 행사인

대바자회 개최,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추천, 황화방 운영, ‘이화인의 밤’ 행사 개최에 대해 안내하며 임원들의 의견을 묻고 상반기 정기 임원회를 종료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제19대 총동창회 임원 명단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낮 12시 장소: 동창회관 대회의실(806호)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고문 이경숙(영문 70), 김영주(유교 71)
남상택(물리 74)
회장 이명경(무용 77)
부회장 한은주(특교 79), 곽은아(한음 85)
감사 이정화(독문 74), 정은실(경영 88)
총무 김경령(수학 84)
서기 이한나(기독 90), 백기업(특교 00)
회계 김성희(경제 00), 이여훈(경영 05)

문화부장 이경희(약학 88)
사업부장 이수은(한음 02)
재정부장 김구슬(법대·법전원 93)
음악부장 문주원(피아노 88)
이루사(피아노 92)
홍보부장 정진숙(행정 89)
회우부장 강승애(체육 95)
지역부장 유지연(중문 92)
선교부장 조선영(영문 74)
정보통신부장 박혜련(컴공 95)
시정희(컴공 95)

인문대학회장	안영호(중문 85)
사회대학회장	이혜경(정외 88)
자연대학회장	황복기(화학 83)
공과대학회장	김미영(컴공 85)
음악대학회장	정소희(작곡 89)
조형대학회장	강승주(조소 87)
체육대학회장	전선혜(체육 83)
사범대학회장	윤금진(영교 80)
법대·법전원회장	안경희(법학 86)
경영대학회장	윤은주(경영 89)
의과대학회장	임선영(의학 82)
간호대학회장	변은경(간호 83)
약학대학회장	박병희(약학 84)
생활환경대학회장	우미형(의직 77)
국제학부 회장	이동은(국제학부 05)
대학원회장	이화정(대학원 92)
교육대학원회장	양수화(교대원 74)
디자인대학원회장	김곡미(디대원 93)
사회복지대학원회장	남영안(사복대학원 21)
정책과학대학원회장	김순옥(정책대학원 19)
신학대학원회장	최영신(신학대학원 12)

선교부 소식

우간다의 작은 거인, 김영자 선교사를 만나다

2023년 6월 5일(월), 영문과 선교부 월례회가 이순복(영문 70) 동창의 집에서 있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김영자(영문 66) 선교사가 동기인 손선혜(영국 거주) 동창과 함께 귀국해 13년간의 우간다 선

교 사역 보고를 했다. 김영자 선교사는 미국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은퇴한 후, 66세에 우간다로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Seed Mission(씨드 선교회) 소속으로 룽아일랜드 뉴하트한인교회에서



김영자 선교사를 만난 영문과 선교부원들



김영자 선교사와 우간다 동역자들

파송을 받아 우간다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음은 김 선교사의 사역 보고의 내용을 적은 것이다.

〈우간다는 연중 같은 기온을 유지하며 우기와 건기로 나뉜다. 교회는 많으나 복음 진리를 깨닫고 선포하는 곳이 적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지도자를 키울 꿈을 갖고 신학교를 세웠다. 수도 캄팔라와 엘레베 중간에 위치한 곳에 신학교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선교이고 자원해서 선교지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통해 선교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는 은혜를 받았다. 지난 5월 졸업한 Innocent(26세)와 Silver Odeke(38세)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악한 소외지인 카라모자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다.

깨어진 가족관계, 무너진 성 윤리, 모계 사회 같은 곳,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목자 없는 어린 양 같다 하신 주님의 궁휼의 마음이 생겼다(마 9:35-37).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키운 제자들도 흩어져 사람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됨을 보았다 한다. 비록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고 힘이 난다.〉

김영자 선교사는 모인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

다. 신학교 사역을 이을 후임자를 위해, 제자들이 맡은 영혼들을 깊이 사랑으로 돌보기를, 또 당신이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부탁해 모두 함께 기도했다. 우리는 김 선교사를 보면, 여든의 작은 체구 안에 주님의 큰 사랑이 있음을 보았다. 〈동창 선교사 기도수첩〉의 사진만 보고 기도하다가 직접 얼굴을 보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들으니 감동이 더했다. 모임을 마치고 김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문자 인사를 보내왔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화를 사랑하시고 선교에 헌신하신 믿음의 동창들이 계신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화를 위해 저도 부족한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우간다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생전 처음 만났으나 이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로 만나 하나님을 누리는 따뜻한 만남이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네요. 반겨주는 이화가 좋네요.” 김영자 선교사는 이렇게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글·이명실(영문 78, 영문과 선교부장)

모교소식

— 1 —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식 개최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식이 5월 31일(수)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및 장상·신인령·이배용·김선욱·김혜숙 전임 총장 등과 전·현직 동창 국회의원, 근속 교직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이화 창립 137주년을 축하했다.

김은미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이화 창립 137주년을 넘어서 이화 150주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성실히 준비하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이화 성장의 역사를 세계와 공유하며 이화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계적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을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해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사 후에는 모교 근속직원 표창 및 자랑스러운 이화인, 이화학술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모교 30년·20년·10년 근속 교직원 146명을 대표해 임동원 이화여대 사대부속 이화·금란중학교 교사, 이상돈 환경공학전공 교수, 강성기 건축팀과장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한국 연극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온 박정자(커미부 명예졸업) 동창과 동아일보 대기자 김순덕(영문 84) 동창이 ‘제21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했다.

또한 ‘제19회 이화학술상’ 수상자인 화공신소재 공학전공 김용표 교수와 약학과[대학원] 이경림(약학 81) 교수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기념식에 이어 총장 초청 오찬이 ECC 이삼봉홀에서 열렸다. 행사 참석 귀빈과 이화 후원자들을 위해 마련된 오찬에서는 학교발전기금 후원자들에 대한 장명수 이사장의 감사패 증정이 진행됐다.

— 2 —

(주)이수매니지먼트 장애인표준 사업장 서비스 본격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주)이수매니지먼트가 운영하는 ‘이화김밥’이 6월 1일(목) 교내에 오픈했다. 이수매니지먼트는 지난 4월 중간고사 기간 진행된 ‘든든한 이화사랑’에서 ‘이화과자’ 쿠키를 나눈 데

이어, ECC에 ‘이화김밥’ 매장을 오픈하며 장애·비장애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이화김밥’은 창립기념일이었던 5월 31일(수) 학생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선착순으로 배부된 1,000줄 김밥은 1시간 만에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수매니지먼트는 발달장애인들, 특히 취업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여성 발달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장명수)이 2022년에 설립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1886년 조선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열어준 이화의 창립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이수매니지먼트를 설립했다.

이수매니지먼트는 2월부터 장애인 채용을 진행, 의료행정지원 및 식품서비스 부문 38명의 발달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의료행정지원 부문 직원들은 이화의료원에서 휠체어 관리와 검체 운반, 사무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서비스 부문 직원들은 이화알프스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이화과자’를 만들고 있다.

직장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우러져 생활하는 통합사회를 추구하는 이수매니지먼트는 장애 사원들이 일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고 있다. 식품서비스 부문의 경우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안전하게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했다. 발달장애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했다. 현재 비장애 직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화김밥’도 장이 안정화되면 장애 사원의 투입을 확대할 계획

이다. 하반기부터는 교내 ‘이화상점’에서도 장애 사원들이 근무를 시작한다. 이수매니지먼트는 법 인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교 생활협동조합을 인수했다. 사업의 다각화와 장애 사원의 직무 개발 다양화를 위한 행보다. 이수매니지먼트는 ‘이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24 유통망을 이용해 매점을 운영하고, 기념품점·나눔가게·카페 등은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매점, 카페 등 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환원된다.

이수매니지먼트 박애영(법대·법전원 96) 대표는 “이화라는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인이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화 구성원들에게는 자기계발 및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화의 창립정신이 구현되는 모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3 — 새 학기 이화 캠퍼스의 새 공간

학생식당 새로 문 열어

새로운 학생식당이 3월 20일(월) 이화·삼성국제 기숙사(I-House C동)에 문을 열었다. 총무처(처장 정덕유)는 노후화된 식당 환경을 개선하고, 교내 구성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학생식당의 위치 선정 및 시설 설비 등에 공을 들였다.

학생식당의 메뉴는 정식(뷔페형)과 양식, 면류, 한그릇 음식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편에 카페를 마련해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공

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제교육관에 대형 카페가 입점하고, ECC 푸드코트도 운영시간을 정상화했다.

유연학습공간, EWHA Learning Space 오픈

종합과학관 D동과 아산공학관 2층에 새로운 오픈형 학습라운지를 구축했다.

종합과학관 D동 지하2층 라운지는 학습과 그룹 활동이 가능한 개인형, 그룹형 공간을 갖춘 유연학습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종합과학관 라운지는 자율학습, 팀프로젝트, 휴식 등 다양한 학生活동을 지원하는 플렉서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인 학습공간, 소규모·그룹 스터디 공간, 소파형 좌석 등 30여 석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인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자를 고려해 콘센트(전원) 이용이 쉽도록 공간을 설계했다.

아산공학관 2층 공간 역시 1인 학습공간, 바 테이블, 소파형 좌석 등 20여 석을 구비해 트렌드에 맞는 밝고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라운지 곳곳에 전원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해진 중앙도서관 학습 환경

중앙도서관(관장 정은경)도 1층 시청각자료실을 IT·미디어 및 전자기기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복합공간 미디어 스테이지(Media Stage)로 조성했다. 개별 공간 및 스마트 학습 환경에 대한 학생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개인 간 거리를 확보하였으며, 개인 전자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스마트 열람석을 도입했다. 1인 미디어석은 DVD, Blu-ray 등의 미디어 콘텐츠는 물론 OTT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등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러 명이 함께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그룹시청실

은 '무비 스트리트(Movie Street)'로 명칭을 변경해 영상 및 VR 등을 자유롭게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층 과학기술분야 자료실의 열람 공간도 새롭게 정비해, 서가를 조정하여 이용자 공간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IT·전자기기 이용 설비를 확충해 독립형 학습공간으로 변모했다.

— 4 —

제19회 김옥길 기념강좌 개최

이화인문과학원(원장 김진희)은 3월 29일(수) ECC 이삼봉홀에서 '제19회 김옥길 기념강좌'를 개최했다.

'김옥길 기념강좌'는 이화의 큰 스승이자 모교 제8대 총장을 역임한 김옥길 선생님(1921~1990)의 뜻을 기리고, 인문·사회·자연과학·예술의 발전과 그 학문적 성과의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학술강좌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강좌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총장, 신인령·김혜숙 전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및 주요 보직자,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위원 등 교내외 귀빈과 모교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기념강좌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우르술라 K. 하이제(Ursula K. Heise) 교수를 연사로 초청했다. 우르술라 하이제 교수는 저명한 생태비평가로, UCLA의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연구소 소장이자 동대학 영문과 교수이다. 또한 스탠포드대학에서 환경 인문학 프로젝트를 창립



제19회 김옥길 기념강좌

하고 문학 및 환경 연구 협회(ASLE) 회장을 역임한 연구자이자 환경운동가이다.

김진희 이화인문과학원장은 개회사에서 “김옥길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공동체와 정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가치가 확산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비전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은미 총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 및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은 하이제 교수님의 강연은 창의와 도전, 소통과 혁신, 공감과 포용의 핵심 가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의 이화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며 “이 자리가 새로운 학술 담론은 물론 희망의 메시지로 기억 되기 바란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우르슬라 하이제 교수는 ‘리얼리즘을 넘어 : 내러티브와 환경의 미래들’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전 지구적 삶을 위협하는 기후환경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이제 교수는 강의를 통해 『Eaarth(McKibben, 2010)』, 『The Earth After Us(Zalasiewicz, 2008)』, 『The Ministry for the Future(Robinson, 2020)』 등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다양한 과학소설(Science Fiction)과 사변소설(Speculative Fiction)의 주제와 플롯, 내러티브 전략들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독자들에게 과학적

통찰을 전달하거나 정책을 제안하고,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 장르가 비사실주의적 문학 장르에 의지해 온 이유를 작품 내용과 함께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스토리텔링 전략으로서 과학소설의 사유와 상상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문학이 새로운 시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했다.

이어 손지애(국제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아 하이제 교수와 김애령 이화인문과학원(철학전공) 교수, 박지형 환경공학전공 교수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토론자와 학생들은 기후환경이라는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학이라는 도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 수 있을지, 또한 독자가 과학소설의 내러티브를 현실로 자각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 5 —

법전원, 재판연구관·재판연구원 12명, 신임검사 6명 배출

5월 1일(월),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현미) 12기 손소원 동창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23기 권새라, 김유미, 배지원, 양지예, 유나연, 이유림, 이은수, 이해랑, 이회현, 최원희, 한수원 동창이 재판연구원에 임용됐다. 이 수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중 3위에 해당하는 성과이자 역대 최다 인원이다.

같은 날,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신임검사 임용’에서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김서정, 김아현, 김하경, 이해진, 진혜원, 최윤경 동창이 임용됐다. 전국 법전원 중 4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대학소식

자연과학대학

회장_황북기(화학 83)

특강을 통한 선후배 간 교류

자연과학대학 동창회는 5월 15일(월), 모교 종합 과학관에서 자연과학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특강 <선후배와의 만남>을 개최하였다.

예비 자연과학대학 동창인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나노학과, 생명과학과 소속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과대학 학생들까지 약 14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연과학대학 선배들의 강연에 큰 관심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한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과 열띤 호응을 보여 주었다.

양인상 자연과학대학 학장의 축사와 황북기 회장의 인사말로 행사를 열었으며, 특강은 분야별로 5개 공간에서 송종선(수학 93, 카페24(주) 총괄이사)·김다영(수학 15, 하나은행)·윤은영(통계 92, (주)뉴로공간대표)·박형재(물리 93, 코카콜라(유) 일본/한국 총괄상무)·윤선영(화학·나노 90, 특허청 특허심판관)·정현영(화학·나노 97, 미래에셋 생명)·오훈정(화학·나노 92, BIT마이크로팹연구소)·황유경(생명 89, YUYA바이오컨설팅 대표)·이지연(생명 95, 비보존 사업개발본부 학술이사) 등 9명의 자연과학대학 동창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특강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강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8%, 다음 행사에도 참여하거나 추천하겠다는 의견이 99%, 행사 개최를 1년에 1회 이상 더 자주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99%로, 학부생들은 특강에 대해 큰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동창회 활동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졸업 후 동창회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83%로, 특강 개최가 동창회를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자연대학 학장 이하 5개 학과의 학과장이 모두 참석하여 특강 개최를 응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처럼 대학과 동창회의 콜라보가 더 많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올해 처음 개최된 특강 행사는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며, 특강 개최의 목적인 경험과 지식 공유, 동기 부여, 멘토링 기회의 제공뿐만 아니라 동창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음악대학

회장__정소희(작곡 89)

팬데믹 이후 재개된 이화뮤지페스티벌

음악대학 동창회는 이화 창립 137주년을 축하하며, 싱그러운 5월과 6월의 이화의 밤을 밝힐 음악대학 동창들의 축제, ‘2023 이화뮤지페스티벌’을 5월 26일(금)과 6월 8일(목)에 개최했다. 1996년에 시작된 이화뮤지페스티벌(이하 뮤페)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멈추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다. 코로나19 후 첫 공연인 2023 뮤페는 어려움을 딛고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오는 2025년, 음대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그 의미는 더욱 더 특별하다.

5월 26일(금) 공연은 졸업 30주년 동창들의 무대로 꾸며졌다. 김내리(관현 93)·심현아(작곡 93)·안윤선(종음 93)·이지희(피아노 93)·정자영(성악 93)·홍주희(한음 90) 동창 등 졸업 30주년을 맞아 다시 모인 동창들은 서로 화합하여 모교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아 공연하였다. 30년 전 이화에서 아름다웠던 교정과 친구들과의 추억들을 영상으로 되돌아보며,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손을

맞잡고 팬데믹도,
또한 어떤 어려움
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하자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
했다.

뮤페 둘째 날인
6월 8일(목) 공연
에서는 음악대학
내의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 종교음악과, 한국음악과 등 6개 과의 동창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4년 만에 재개되는 축제인 만큼 이대 음대 동창의 저력을 보여주듯 각 과에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이화그레이스 콰이어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로 축제를 마무리 했다. 이번 뮤페는 특별히 음대 동창회 부회장인 김정미(성악 89) 동창의 멋진 사회로 빛이 났다.

의과대학

회장__임선영(의학 82)

2023 봄 걷기대회

4월 11일(화) 명동 로얄호텔에서 임선영 회장, 김태임(의학 74) 장학위원회 등 39명의 동창들과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대 의대 동창회 정기 이사회가 진행되었다. 24대 신임 집행부의 구호인 SMILE(Serve with Meaningful and Interesting Learning and Experience)을 다짐하면서 임선영 회장은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혜숙(의학 78)·윤석완(의학 76) 고문, 조종남(의학 75) 자문위원이 동창회 활동과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동창회 홈페이지 리뉴얼, 자립 청소년 생활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다.

걷기 대회가 4월 23일(일) 서울식물원에서 계희 순(의학 70) 동창부터 박설희(의학 10) 동창까지 9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라인만에 만난 동창들은 맑은 날씨 아래 선배들이 후원한 보냉 가방과 마스크 팩, 떡, 누룽지 등을 받아들고 서울식물원의 아





서울식물원에서 열린 걷기 대회에 참가한 의과대학 동창들

름다운 초록을 만끽하였다. 또한 동창회에서 나눠준 커피 쿠폰과 경복궁에서의 맛있는 식사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약학대학

회장__ 박병희(약학 84)

제40회 화합의 날 행사

5월 23일(화) 오전 10시 과천 서울대공원 잔디광장에서 제40회 화합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박병희 회장은 ‘화합의날’ 행사는 “선후배 동기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서 모든 동창들이 참여해서 우의를 다져왔다”고 하며, 길었던 코로나19 시기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넓은 호수가 광장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하였다.

총 233명이 참석했는데 21회(1970년 졸업)에서 32명으로 최다 참석하였고 23회, 졸업 50주년을 맞은 24회, 26회, 졸업 40주년을 맞은 34회에서 대거 참석하였다. 주홍 조끼를 입은 임원진이 참석자들을 공원 입구에서 잔디광장으로 안내를 하였다. 날씨도 화창하였고 장소도 대공원 입구에서 가깝고 호수가 경치가 빼어난 잔디광장에서 약대 동창들만의 잔치를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의 만남의 봇물이 터져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12회, 21회, 23회, 24회, 26회 동창들이 미리 준비한 장기자랑을 선보여 더욱 즐겁게 지냈다. 특히 12회 동창들이 준비한 <한잔해> 코믹 댄스는 많은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34회(1983년 졸업) 동창들이 250명 분의 맛있는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주었다.

5월 31일(수) 오후 2시부터 대강당에서 모교 창립 137주년 동창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다. 이날 1부에서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이 있었고 2부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이 있었다. ‘올해의 이화인’이 입장할 때는 아리따운 한복을 입은 동창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손을 흔들며 함박웃음으로 입장하여 동창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3부에서는 합창 경연이 있었다. 박병희 회장을 단장으로 한 약대 합창단은 파도의 물결처럼 진한 코발트색의 드레스를 차려입었다. 약학 15회(1964년 졸업)에서 43회(1992년 졸업)까지 약 30년 터울의 각 기 동창 35명이 모여 두 달 이상 연습을 하였다. 이날 약대는 이봉조 작곡의 <무인도>를 불러 ‘올해의 이화인 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지휘에는 최영은(종음 97) 동창이, 반주에는 박유미(종음 97) 동창이 함께했다.

‘올해의 이화인 상’을 수상한 약학대학 합창단



간호대학

회장 __ 변은경(간호 83)

제62회 정기총회 및 15회·35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

5월 31일(수), 제62회 정기총회 및 15회·35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가 진행되어 변은경 회장 및 임원, 강윤희(간호 94) 간호대학장을 포함해 총 95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특별히 간호대학 학생을 위한 장학금 '최신실 장학금'과 'Hyun Sook Ryu Nursing Scholarship' 두 장학금에 꾸준히 후원하며 지금까지 10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기부한 현정옥(간호 67) 동창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15회 동창(1973년 졸업)들과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35회 동창(1993년 졸업)들은 간호대학과 간호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각각 전달하였고, 감사의 마음으로 동창회에서 준비한 식사 자리에 모두 참석하여 끈끈한 동창의 정을 쌓았다.



동창의 날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봄 야유회를 다녀온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4월 27일(목) 1969년 졸업 동창부터 1991년 졸업 동창까지 46명의 동창들이 중남미문화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1994년에 설립된 중남미문화원은 중남미 지역 4개국 공관으로 지내며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한 이복형 중남미문화원장이 은퇴 후까지 40여 년에 걸쳐 수집한 수집품으로 박물관을 열면서 시작되었다. 중남미 고대 유물부터 식민기 근·현대 미술,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아시아 유일의 중남미 테마 문화 공간으로, 부인(홍갑표 이사장)과 함께 박물관(1994년), 미술관(1997년), 조각공원(2001년), 종교전시관, 벽화, 연구소(2011년)까지 이루어낸 곳이다.

홍갑표 중남미문화원 이사장의 인사말 후 전문 도슨트의 설명으로 중남미 고대 유물, 미술, 조각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을 관람했다. 미술관, 박물관, 종교관, 마야 벽화 등을 관람하면서 걷는 곳곳은 아름다운 숲과 나무, 다양한 꽃들, 조각으로 힐링 할 수 있는 봄 야유회 최적의 장소였다.

카페에서 타코와 커피로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 꽃을 피운 동창들은, 마야 벽화 앞에서 아령회 합창단 지휘자 박미경(의직 76) 동창의 지도로 합창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령회 총무 방미숙(의직 91) 동창이 진행한 이화 퀴즈로 이화여대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알찬 시간이 되었다.

생활환경대학

회장 __ 우미형(의직 77)

중남미문화원으로 봄 야유회

과 소식

국어국문학과

회장__김경희(81)

이태극 문학관과 남도 문학여행 다녀와

4월 13일(목) 국문과 20기(1969년 졸업) 동창 15명이 월하 이태극(1913~2003) 문학관을 탐방했다. 한국 시조시인협회를 발족하고, 최초의 시조 전문지 『시조문학』을 창간(1960년)한 이태극 교수가 모교 국문과에 재직(1953~1978)할 당시 직접 시조 문학을 배운 동창들은 이태극 교수 20주기를 기념하여 강원도 화천군에 소재한 문학관을 찾았다.

한편 5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졸업 50주년을 맞은 1973년 졸업생 24명이 남도 문학여행을 다

졸업 50주년 기념 여행을 다녀온 국어국문학과 동창들



녀왔다. 고 이어령 교수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주의 최명희 문학관, 이청준 생가, 영랑 생가, 시문학관, 다산 초당, 가우도, 고창 청보리밭, 고인돌 유적지, 선운사, 서정주 생가까지,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여행이었다. 모두 모교 이화티셔츠를 맞춰 입고 대학 시절로 돌아간 기분을 만끽하며, 이대 국문과의 궁지를 느낄 수 있었다.

5월 16일(목)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60여 명의 동창이 모여 국어국문학과 동창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전임 송동수(74) 회장이 임기를 끝내고 김경희 동창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1973년 졸업 동창들의 멋진 남도 문학여행 동영상을 함께 보았으며, 국문과 동창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그리고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된 이재민(73) 동창의 인사도 있었다. 지민근((주)이든네이처 발효과학연구소 소장) 박사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식사’ 강연을 들으며 마무리하였다.

영어영문학과

회장__홍성미(78)

영학회 춘계강좌

4월 15일(금)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영학회 춘계강좌가 열렸다. 정경숙(79) 부회장의 개회선언 후 다같이 찬송가 442장을 부르고, 성혜옥(70) 동창의 기도가 이어졌다. 홍성미 회장의 인사에 이어, 2023 ‘영원한 이화인’ 김영숙(73) 동창과 2023 ‘올해의 이화인’ 엄현진(93) 동창 소개가 있었다. 또한, 영학회에서는 총동창회 선교부에 후원금을 전달하였고, 장학금 400만 원을 대외협력처에 전달하였다.

강태경 모교 인문과학대학장이 ‘셰익스피어의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강의했는데, 셰익스피어의 37편 희곡 작품을 사극, 전기 희극, 비극, 후기 희극으로 나누어 장르별로 나타나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U-토피아적 상상력을 살펴보았다. 희곡 작품별 주제와 이를 잘 드러내는 한 줄 대사를 통해 셰익스피어 희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 강연은 영학회가 동창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영국 본토에서의 셰익스피어 연극작품 관람을 포함하는 영문학 기행(2023.5.19~5.29)의 홀륭한 지침서가 되었다.

또한 다가오는 2025년 영문과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안내도 있었다. 고문인 오정화(76) 교수가 사업 설명을 했고, 최성희(88) 교수가 영문과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새 시대를 맞아 이화의 여성 교육관이 도약하고, 동창들이 집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학회 춘계강좌에 참석한 영어영문학과 동창들

독어독문학과

회장__이지연(75)

마스크 벗고 만난 기간사 모임

3월 23일(목) 압구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기간사 모임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기 간사 모임을 가진 독어독문학과 동창들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대할 수 있었다. 3년 만에 모인 이 자리엔 14명이 참석해 2022년 독문과 동창회의 회계보고 및 선후배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5월 31일(수) 이화 창립 137주년 행사가 모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원한 이화인’에 민용자(67) 동창, ‘올해의 이화인’으로는 송원자(93) 동창이 선정되어 많은 동창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뒤풀이에서는 선후배 간에 돈독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동창회에선 졸업 50주년, 30주년이 된 동창들에게 작은 선물을 증정했다.

사학과

회장__한상혜(73)

수원 화성으로 봄 정기 답사

3월 23일(목) 인사동 선천에서 상반기 간사회가 열렸다. 동창회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간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였다. 4월 27일(목) 인사동 선천에서 간사회가 열려, 5월로 예정된 봄 정기 답사와 6월에 있을 사학과 동창회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5월 11일(목) 수원 화성으로 정기 답사를 다녀왔



봄 정기 답사를 다녀온 사학과 동창들

다. 사학과 동창회의 자부심이 녹아 있는 정기 답사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진행되는데 이번 답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되어 감회가 더욱 새로웠다. 화성행궁, 용건릉, 용주사를 둘러보는 스스로 이어진 답사에서 영조, 사도세자, 정조로 이어지는 18세기의 조선 국가 운영을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과

회장__ 김노미(88)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2023년 문헌정보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가 3월 25일(토) 모교 김애마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1960년도에 입학한 동창부터 2020년도 입학한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한 문헌정보학과 동창회



학생까지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22년도 동창회 활동, 회계보고 및 신입 동창 소개, 장학금 수여, 학과 동창 소식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동창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사 45명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냈다.

또한 선교부장으로 3년을 수고한 이정우(88) 동창에게 감사의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고, 동창회와 선교부 활동에 대한 얘기와 그들의 현신과 봉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유정(91) 동창의 제주감귤 손세정제 90개, 김노미 회장의 문정 로고 머그컵 90개 협찬으로 더욱 풍성한 총회가 되었다.

사회복지학과

회장__ 김정진(80)

신임 회장 추대

사회복지학과 동창회장에 김정진 동창이 추대되었다. 김정진 동창은 나사렛대 명예교수로, 정신 보건분야에서 많은 사회공헌을 해왔으며 학창 시절부터 달라방 활동을 통해 선교 활동을 해왔다. 김정진 동창은 “앞으로 사회복지학과의 동창들의 사회 활동을 서로 나누며 교류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애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물리학과

회장__ 이정신(89)

정기총회 및 홈커밍 데이 행사

5월 31일(수) 모교 국제교육관 1301호에서 2023년 물리학과 동창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물리학과 동창회 정기총회에는 55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정기총회에 참석한 물리학과 동창들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를 시작으로 2023년 사업보고와 예산안 승인이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재 물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수 학생에게 2023년 물리학과 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2023년 ‘영원한 이화인’으로 선정된 신승애(63) 동창과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박형재(93) 동창을 소개하였다. 2023년 1학기를 끝으로 모교 물리학과 교수직에서 퇴임하는 이공주복(81) 동창의 퇴임 축하 자리가 있었다.

이날 총회는 물리학과 홈 커밍 데이를 함께하여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33기(1993년 졸업) 동창들과 50주년을 맞이한 13기(1973년 졸업) 동창들을 소개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대인 만큼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선배와 후배가 교류하며 정을 나누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졸업 30주년을 맞은 박성희(93)·배주은(93)·이지희(93)·황선미(93) 동창이 피아노 연주를 맡아 아름답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였다. 음악회 날에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음대 선후배들이 참석해 연주자들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며 이 아름다운 음악 축제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6월 8일(목) 김영의홀에서 이화뮤직페스티벌의 두 번째 무대로 올려질 ‘음악대학 각 과 음악회’도 동창들이 합심하여 준비하였다.



졸업 30주년을 맞은 피아노과 동창들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동양화과

회장 __ 이승은(89)

피아노과

회장 __ 문주원(88)

이화뮤직페스티벌

이화뮤직페스티벌의 첫 번째 행사인 ‘음악대학 졸업 30주년 기념음악회’가 5월 26일(금) 음악대학 김영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화뮤직페스티벌은 매년 봄에 열리는 이화 음대 동창들의 음악 축제로 올해 오랜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화뮤직페스티벌은 음대 동창들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무

메이데이전에 참석하여 후배들 격려

녹미회에서는 해마다 예비 졸업생들 중 각 과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비전 이화 미술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동양화과에서는 전윤재(23) 동창이 선정되어 3월 28일(화) 이화아트센터에서 그룹 전을 시작했다.

조형예술대학 3학년생들의 작품전인 메이데이전이 5월 23일(화)부터 28일(일)까지 조형예술관 A동 및 이화아트갤러리 등에서 열렸다. 오픈식에



메이데이전의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는 원문자(66) 명예교수를 비롯, 동창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동양화과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이번 전시를 축하하였다.

5월 31일(수) 동창의 날을 기념하여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이 열렸다. 김지연 동창이 한 해 동안 동양화과를 대표하는 이화인으로서 학교의 발전과 학과의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장을 관람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후배들과의 소통을 위해 선배들은 기꺼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23일(화)부터 28일(일)까지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 조형예술대학 메이데이 전시가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서양화과는 조형예술대학의 대표적 전시 공간인 이화아트센터와 함께 3층 서양화과 복도, 실기실에 전시를 했다. 이화아트센터 전체와 3층의 전시는 서양화과의 역량을 보여 주는 전시여서 동창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이 큰 사이즈의 회화 작품들과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설치 작업과 비디오 매체 작업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차후 서양화과 졸업생들의 전시 ‘이서전’에 영입되어 활발하게 활약할 귀한 후배들이어서, 축하와 지지를 보낸다.



메이데이 전시를 축하하는 서양화과 동창들

서양화과

회장 __ 송은주(86)

재학생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관람

3월 28일(화) 조형예술대학 이화아트센터에서 ‘비전 이화 미술인전’ 개막식이 있었다. ‘비전 이화 미술인전’은 전년도 모교 졸업전시회에서 선정된 각 과 졸업생에게 전시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서양화과 졸업생으로서 회화와 미디어 작품을 출품하여 선배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축하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4월 29일(토)에 재학생과 동창 선배들이 함께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른 아침 7시 모교에 모여 버스를 같이 타고, 하루 종일 함께 일정을 소화하고 늦은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행사였다. 하루 안에 광주를 방문하여, 넓은 전시

조소과

회장 __ 오주연(90)

운영위원회에서 ESAarts Award 심사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최병상 명예교수 초대전과 장두진 미술상 수상작가전 손혜경(03) 동창의 전시에 오주연 회장을 비롯한 동창 3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도하는 마음, 최병

상 전은 국내 최초로 철조 조각을 시작한 최병상 교수의 66년의 조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로 5월 23일(화)부터 9월 10일(일)까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최 교수에게 배운 제자부터 퇴임 후에 학교에 다닌 동창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창들이 포항시립미술관에 모여 그간의 작품 세계를 듣고 작품을 감상하였고 포항 환호공원 및 스페이스워크 산책을 하며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2022년 ESAarts(Ewha Sculpture Association) Award 학부 수상팀(박상현(22), 박주미(22), 옥정빈(22), 이경은(22), 황은주(22))의 ‘새론 잇다’ 전이 5월 2일(화)부터 8일(월)까지 갤러리코사에서 진행되었다. 나아가는 길의 방향과 속도가 저마다 다른 작가들이 모여서 누군가는 늦고 빼음을 따지기 전에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했던 신진 작가들의 뜻깊은 전시였다.

2023년도 조소과 동창회 운영위원회가 5월 22일(월) 2시 스페이스 다온에서 개최되었다. 오주연 회장, 이종희(71)·심부섭(76)·고혜숙(77)·최은경(79)·박신정(85)·김연(91)·김양선(94)·박은선(98)·박정향(15)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하반기 사업계획과 이화조각회 온라인 전시에 관한 세부 사항 논의, 2024년도 이화조각회 전시관련 안건에

최병상 교수님 전시회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대한 논의 및 2023년도 ESAarts Award 심사를 진행하였다. 결과 학부 1팀, 대학원 1팀, 동창작가 2팀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4팀은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을 받아 2023년에서 2024년도 상반기 안에 전시를 진행하게 된다.

섬유예술과

회장 __ 이상영(94)

예미회 총회 및 회장단 워크숍

3월 11일(토) 이대 후문 커피빈에서 23대 섬유예술과 임원진들이 첫 회의를 가졌다. 신임 이상영 회장 이하 임원진이 모여 2년간 섬유예술과(예미회)의 활동을 계획하고 새로운 임원진들과 인사하였다. 또한 3월 27일(금)에 있을 예미회 총회에 대한 준비와 5월 동창의 날 준비 및 바자회 등의 행사를 통해 어떻게 섬유예술과 동창들이 함께 동참하고 교류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참석자는 김미진(93)·이지언(93)·이상영·이혜원(96)·최유리(96)·안은선(07)·정현정(07) 동창이다.

3월 27일(월) 오후 1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3년 섬유예술과 동창회 총회를 열었다. 총회는 이상영 회장의 개회 선언 및 개회사 인사를 시작으로 기도, 축사, 내빈 및 임원 소개, 예미회 활동 영상, 2022년 활동 보고 및 이화인 소개, 2022년 회계 결산보고, 2023년 연간 예미회 일정 계획, 총평, 기념 촬영, 폐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올해의 이화인’으로 김미진 총무가 선정되었으며, 2023비전인 작가로는 전희주(23) 동창이 소개되었다.

이번 총회는 이효범(61) 동창부터 전희주 동창, 2024년 졸업이 예정인 예비 예미인들까지 세대를



예미 총회에 참석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생활미술과 동창회 총회에 참석한 동창들

아우르는 자리였다. 팬데믹 시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던 동창들은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격려하는 반가운 시간을 가졌다.

4월 26일(수)부터 27일(목)까지 신임 예미회장이 주재하는 첫 예미회장단 회의 및 워크숍이 강원도에 위치한 바우지움조각미술관과 아르떼뮤지움에서 있었다. 고성 바우지움조각미술관에서 김명숙(조소 74) 관장의 가이드로 미술관에 대한 소개와 작품을 관람하였다. 미술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들, 회장님들의 선생님, 선배와 동기들의 조각 작품들을 만나면서 7~80대의 회장들이 이화에서 보낸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석자는 이효범·김혜순(66)·오복환(66)·이상복(67)·윤귀영(71)·장영란(77)·박정례(79)·전영선(88)·박희전(90)·이상영 동창.

소개, 이화인 활동 소개, 2023년 연간 생미과 동창회 계획 공유, 참여자들의 인사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스탠다드원’의 재즈 공연을 관람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 지었다. 생활미술과의 다양한 모습을 나누며 미래를 응원하고 선후배 간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장식미술과-공간디자인전공

회장__이승언(91)

동문의 밤 행사

5월 12일(금) 장충동 서울 클럽에서 공간디자인 전공(前 장식미술과) 50주년을 기념하는 동문의 밤이 개최되었다. 2023년 행사 드레스 코드는 ‘데님’이었으며, 총 80명이 넘는 동창들이 저녁 식사

생활미술과

회장__김수진(94)

총회 열고 선후배 간 결속 다져

6월 15일(목) 저녁 7시 서울시 잠원동 ‘블루페이지’에서 생활미술과 동창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수진 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최유미(85) 조형예술대학 학장의 축사, 기도, 내빈 및 신규 임원

공간디자인전공 동문의 밤 행사에 데님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은 동창들



와 바자회를 함께 즐기며 감사한 시간을 가졌다.

리에서 패션디자인전공 석사과정 교과목 전시 '패션아트, 패션미디어스타일링' 전을 열었다.

장식미술과-패션디자인전공

회장__하승연(94)

도예과

회장__한주원(89)

패션창업스튜디오 결과물 전시

3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이화아트갤러리(이화여대 조형관 A동 1층)에서 패션창업스튜디오 결과물 전시 'FASHION START-UP STUDIO'를 열었다. 3월 28일(화)부터 4월 1일(토)까지 열린 제15회 비전이화미술인전에 우리 전공에서는 장자원(23) 동창이 선정되어 'Soulmate' 작품으로 참여하였다.

5월 23일(화)부터 30일(화)까지 창립 137주년 기념 조형예술대학 3학년 전공 학생들의 작품전인 메이데이 전시가 개최되었다. 우리 전공은 MEFLEX 1, 2층에서 '순환'이라는 주제로 조형성 및 실험성을 지향하는 패션과 예술의장을 마련하였다.

5월 31일(수)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이화인'에 패션디자인 전공 고동연(93) 동창이 선정되었다. 고동연 동창은 2006년 박사(미술사 및 영화 이론) 취득 후 미술비평가, 저술가, 연구가로서 국내외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5월 30일(화)부터 6월 3일(토)까지 이화아트갤러

총회에서 신임 회장 추대

2월 14일(화)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3대 도림회장단이 진행하는 도림회 총회가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첫 오프라인 총회이며 김수정(생미 66)·김옥조(생미 66)·유혜자(생미 67) 교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빛내주었다.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혜수(88) 회장에 이어 한주원 동창이 23대 동창회장으로 추대되었다. 22대 회장단의 결산과 올해의 사업 계획 발표 및 신입회원을 환영하며 함께 축하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6월 21일(수)부터 26일(일)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갤러리 2, 3전시장에서 제43회 도림전을 진행하였다. 도림전은 여러 세대의 작가들이 모여 도자예술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전시이다.

무용과

회장__한명옥(79)

무용과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무용과 동창회는 2023년 무용과 설립 6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추진위원회(역대 동창회장들로 구성)와 실행위원회(현직 교수와 졸업생 대표로 구성)를 조직하고 무용과와 협력하여 한 해 동안 기



년 행사를 개최한다.

그 첫 행사로 지난 5월 25일(목) 이화여자대학교 ECC내 이삼봉홀에서 무용과 설립 60주년 기념 ‘이화춤! 60년을 꽂피우다’의 일환인 기념식과 세미나 ‘대학무용의 지평’, 그리고 전시 ‘이화춤X60’을 개최했다. (주최: 무용과, 후원: 무용과 총동창회)

무용계 인재 배출의 산실인 이화 무용 60년을 기념하고, 미래 무용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는 1기 졸업생들을 비롯해 이화 출신의 무용가, 대학교수, 국공립단체 대표 등 무용계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오주연(06) 교수, 서울교육대학 이정연(88)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남정호(75)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동창과 재학생이 함께 토론하는 자유 토론 시간도 가졌다.

전시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무용과 졸업생들이 기증한 사진자료들이 공개됐으며,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 영상도 상영되었다.

무용과 동창회에서는 5월 31일(수) 동창의 날 행사에 앞서 무용관(토머스홀)에서 무용과 7기(1973년 졸업)와 27기(1993년 졸업)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년의 차이를 넘어 무용과 동창이자 예술계 선후배들이 화합하는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으며, 60주년을 맞은 무용과의 행사 개요와 동창회 주요행사 안내 및 보고도 이뤄졌다. ‘올해의 이화인’ 상 수상자의 축하와 사진 촬영

무용과 6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무용과 동창회



으로 마무리됐다.

무용과 동창회 89학번(1993년 졸업)은 무용과 설립 60주년과 89학번 졸업 30주년을 기념하여 4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홍대 포스트극장에서 <이대 팔구27 Collective – 함께 걷는 길 동행>을 기획하여 공연했다. 89학번 졸업생 가운데 공연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용가 8인(김경희(93)·김정은(93)·김향(93)·박주영(93)·손미정(93)·윤정아(93)·정정아(93)·태혜신(93) 동창)이 안무하고 출연했으며, 공연기획자 임재이(95) 동창이 기획총괄하고, 쇼호스트 이지영(93) 동창이 사회자로 참여했다. 모두 무용과 89학번(27기) 동창이다. 이들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무용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화 무용과 동창들의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월 25일(목) 무용과 89학번 동창회는 <이대 팔구27 Collective – 함께 걷는 길 동행>의 수익금 500만 원을 무용과 동창회를 통해 동자동 쪽방촌을 돋는 ‘사랑방 마을 협동조합’에 기부했다.

유아교육과

회장__김용희(89)

스승의 날 행사 개최

5월 13일(토) 서울 한정식집 달개비에서 퇴직 은사와 현직 교수를 초청해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전·현직 동창회 임원들과 졸업 50주년을 맞아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된 박혜경(72) 동창이 참석하였고, 은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사랑과 감사를 전했다.

1부는 황혜현(91) 부회장의 사회와 최혜영(89)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김용희 회장의 감사 인



스승의 날 행사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낸 유아교육과 동창회

사, 선물 중정으로 진행되었다. 2부 식사 이후에는 이은화(59) 은사님의 육성 녹음 덕담과 학창 시절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담소와 추억을 나누었다.

그리고 5월 31일(수) 이화 창립 137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졸업 50주년 동창들 중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인 박혜경(72) 동창이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되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를 받았다. 또한 졸업 30주년에 해당하는 유아교육과 89학번 동창들은 모두가 함께 '올해의 이화인'에 동참하고자 25명의 동창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후원금 380만 원을 총동창회에 기부하였다.

국제사무학과

회장__고현주(90)

동창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개최

4월 29일(토)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3년도 국제사무학과 동창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한 지 2년만의 첫 대면 정기총회로 기존 및 신입 동창 50여 명과 국제사무학과 교수 전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뤄졌다. 21대 오영란(89) 회장의 개회사 및 신임 22대 고현주 회장의 기도, 국제

사무학과 기독교 동아리 마라나타의 특송을 통해 시작된 총회는 크게 3부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국제사무학과 동창회 활동 보고 및 학과 소식 전달,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등의 정기 보고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학과 소식으로는 피플애널리틱스 트랙(국제회의전문가) 과정 및 로펌비서 자격증 과정의 신설 소식을 공유 받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국제사무학과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오찬과 함께 '불황의 시대, 커리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Fireside Chat이 진행되었고, 이후 경품 추첨 및 단체 사진을 촬영으로 마무리되었다.

국제사무학과 동창회는 동창회 기금을 학부생 장학금, 해외 인턴십 및 유네스코 인턴십 수행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졸업, 2023년 졸업한 신입 동창에게 동창회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격려금 또한 지급하였다. 그 외 지난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모금한 금액을 학과 건물 및 기자재 구입 등의 사용을 위해 보관하고 있다.

22대 신임 동창회는 고현주 회장, 박윤정(91) 부회장, 최애경(78) 고문, 이지현(86) 감사, 송솜굴(03) 총무, 박지선(11) 회계, 김매이(14) 서기로 구성되었다. 신임 임원들은 앞으로 있을 동창의 날, 바자회, 이화인의 밤 행사 등 총동창회 사업에 함께 하며 동창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회 소식

단순한 사교 모임 이상의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멜버른 지회

회장__윤숙경(간호 76)

건강 증진 및 단합을 위한 트래킹 모임

4월 22일(토) Village Green Hotel Buffet 식당에서 12명의 동창이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특별히 김명희(가정 66) 동창의 팔순 기념 축하 모임으로, 만남의 기쁨이 배가 되었다.

김명희 동창은 1972년 4월 멜버른에 도착했으며, 멜버른 지회는 1986년에서야 창립되었다고 한다. 김명희 동창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년간 지회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동창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동창들을 기준으로 치면 최고 선배이다. 고경자(동양 63) 동창이 김명희 동창의 3년 선배인데 요즘은 운전하기가 수월치 않아 자주 뵙지 못해 안타깝다.

식사 후, 호텔 내 위치한 카페에서 회의를 했다. 총무인 박해주(교공 99) 동창의 그간의 활동 보고와 회계 보고가 있은 후, 윤숙경 회장이 《이화동창》 회보를 나누며, 평생회비 후원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그리고 아직 멜버른 지회에 가입되어

첫 정기 모임을 가진 네덜란드 지회



김명희 동창의 팔순 기념 축하 모임을 가진 멜버른 지회 동창들



있지 않은 이화 동창들을 주위에서 관심 있게 보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기적 동창 모임 외에도 수시로 건강 증진 및 단합을 위해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여행 및 트래킹을 하기로 하였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동창회 단체 대화방에 공고를 한 후 1차 시도로 5월 27일(토) DANDENONG NATIONAL PARK에서 트래킹을 하기로 하였는데 모두 9명이 참석하였다.

탁 트인 야외에서 맛보는 신선함, 오랜만의 기차 여행, 현지 노천 시장 구경, 즐비한 맛집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과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앞으로도 이같은 야외 모임을 자주 계획하기로 하였다.

몬트리올 지회

회장__김명원(수학 92)

5월의 교정을 추억하며 웃음꽃 피워

작년 연말 모임에 이어 올해도 5월 31일(수)에 11명의 동창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모임을 갖게 되었다. 갑자기 온도가 34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많은 동창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서로에 대한 안부와 5월의 아름다웠던 교정, 즐거웠던 축제, 채플



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나누었다. 식사 후 이채화(무용 76) 동창의 진행으로 제비뽑기와 모교와 관련된 퀴즈 풀기를 통해 선물을 나눠 갖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몬트리올 어린이 병원의 기부금을 상향 조정하자는 결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__최혜영(생미 86)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진선미 플러스 회비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에서 개최한 '사진과 그림을 통한 소망학교 시니어 전시회'에 최길자(화학 65)·남진우(간호 73) 동창이 작품을 출품하여, 4월 18일(화)에 동창들이 단체 관람했다.

5월 31일(수)에는 루루 식당에서 78회 정기 모임을 가졌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양혜자(교육 74) 동창과 최혜영(생미 86) 동창을 통하여 고국과 모교의 소식을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동창회 기 결산 보고 후, 지회 설립 25주년 기념 파티 이익금도 함께 국제재단 세인트루이스 장학기금에 더하여 보내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진선미 모임을 정선주(성악 68) 동창 주도하에 매월 모이기로 하고, 장학기금을 모금을 위한 진선

매월 진선미 모임을 갖기로 한 세인트루이스 지회



미 플러스 회비도 지속적으로 모으기로 하였다.

워싱턴DC 지회

회장_최미나(관현 90)

봄 야유회에 70여 명의 동창 참석

이사회 총회를 이영은(경영 01) 동창 집에서 개최하였으며, 2022년 한 해 수고한 김귀현(영문 56) 이사장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새 이사장으로 김성혜(융합보건 88) 동창을 인준하였다. 3월과 4월에는 국제 하계대학 장학생과 지역사회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4월 22일(토) Hillwood Museum & Garden에 동창들이 함께 방문하였다. 이곳에는 다양한 수집품들과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정원이 갖춰져 있는 봄 나들이 명소이다. 도슨트의 안내로 다양한 전시를 함께 보고 아름다운 야외 정원에서 아름다운 봄꽃들과 연못 등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으며 봄날의 여유를 만끽했다.

5월 20일(토)에는 Lake Fairfax에서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봄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피크닉에는 약 7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1956년 졸업 동창부터 2009년 졸업 동창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동창들이 어우러져 사랑이 넘치는 시간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을 가졌다. 점심식사와 5월 생일 동창 축하에 이어 흥미롭고 다채로운 게임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다섯 개 조로 나뉘어 진행한 게임과 활동에서는 여러 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순발력과 센스를 뽐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올여름에는 DC 빈민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학용품과 책가방을 기부하는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제주 지회

회장_고화련(독문 69)

동창의 날을 맞아 모교 방문

5월 30일(화)부터 6월 1일(목)까지 모교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캠퍼스 투어, 김옥길 기념관 방문, 기숙사 입소, 동창의 날 행사 참가 등등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제주 공항에서 이운희(외국어교육 75) 동창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는 기도를 시작으로 정종순(교육 63) 동창 외 8명은 서울로 출발했다.

이화캠퍼스리더의 설명을 들으며 이화동산을 둘러보았는데, 이화캠퍼스리더가 22학번이라는 얘기를 듣고 김영화(기독 65) 동창은 “딸뻘도 아니고 손녀뻘인 예쁜 후배”라고 하였다. ECC의 친환경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모두 감탄했고, 강의실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카페 등이 있는 그 속에서 자유롭게 책을 보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 심명숙(화학 72) 동창은 다시 한 번 학창 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하여 동창들의 공감을 얻었다.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앞에서 고화련 회장은 1970년대 중반에 제주를 방문한 김옥길 총장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며 그리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보여주는 외관을 보면서 굳건하게 지켜온 이화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 기숙사에 대한 로망을 풀 수 있을 거란 기대와 설렘을 갖고 I-House에 입소했다. 1인실이라서 그 옛날의 4명이 생활할 때처럼 밤새 소근거릴 수는 없었지만 이화의 교정에서 잘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특히 이화동산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아침 산책은 I-House에 입소하는 다른 동창들에게도 꼭 권하는 일정이라고 성진희(화학 85) 동창은 말했다.

5월 31일(수) 동창의 날 행사에서 '빛나는 이화인',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수상자들을 볼 때는 우리가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자부심을 느꼈고, 김은미 총장의 모교 소식을 들을 때는 이화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모교 방문 행사는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여 이루어졌다. 이런저런 사유로 참가는 못했지만 전폭적인 응원과 성원을 보내준 동창들과 걷는 일정이 많아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 씩씩하게 일정을 소화해준 동창들에게 감사한다.



동창의 날을 맞아 모교를 방문한 제주 지회 동창들

진주 지회

회장 __ 염선행(생미 83)

일본으로 봄 여행 다녀와

4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일본으로 봄 여



일본으로 봄 여행을 다녀온 진주 지회 동창들

행을 다녀왔다. 김해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은 출발부터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준 이지은(융합보건 89) 총무의 수고로 편하고 활기차게 출발했다. 비 내리는 교토와 잿빛 오사카의 풍경, 작은 몸짓 하나에 크게 웃어 주는 감동, 뒤처져서 오는 선배를 이끄는 후배, 후배에 대한 선배들의 무한한 배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는 눈길과 관심, 갑자기 모교 교가를 부르며 깔깔대고 웃는 수줍은 후배… 가족 여행을 다녀온 듯 이화의 따스함을 일본에 뿌리고 온 2박 3일은 평범한 시간을 특별한 기억으로 만들어 주고, 서로의 배려와 섬김으로 모두가 여행의 주인공이 되는 행복을 나누어 가진 값진 여행이었다. 동창들은 마지막에 들른 크레이프와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을 품은 작은 카페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

토론토 지회

회장 __ 김수연(물리 86)

정기총회와 횃불회 예배

3월 18일(토) 사리원 식당에서 39명의 동창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1부에서는 김미나(행정 86) 총무의 사회로 전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보



정기총회에 참가한 토론토 지회 동창들

고, 조혜령(성악 96) 동창의 〈Les Filles de Cadix〉 곡의 멋진 특송, 회장의 신년 사업보고 및 윤지숙(중문 92) 동창의 국제재단 및 토론토 지회 장학생의 감사편지 낭독이 있었다. 2부에서는 동창들의 학창 시절 사진을 큰 스크린으로 함께 보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였고, 장학부의 토론토 지회 장학금 모금을 위한 액세서리 및 소품 등을 판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장형숙(통계 97) 동창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차차차 댄스와 집중 박수 등으로 재미 있고 웃음 가득한 여흥 시간을 가졌다.

4월 22일(토)에는 2023년도 두 번째 횃불회 예배를 최인숙(영교 74) 횃불회 부장 집에서 가졌다. 22명의 동창들이 모인 가운데 이화 비빔밥으로 식사를 한 후 예배를 드렸다. 조화정(불문 77) 부회장의 기도, 기타 동호회의 〈살아 계신 주〉 특송과 최경자(영문 63) 목사의 ‘부활의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 말씀을 나누었다. 2부 순서로는 법무사인 최인숙 동창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시 대처 방법’이라는 주제로 예기치 않은 상해사고시 대처 방법에 대해 배웠다.

5월 18일(목)에는 이화여대 토론토 지회 장학생에게 장학금 2,500달러를 수여하는 수여식이 있었다. 작년에 첫 장학생을 선출한 이후 동창들의 꾸준한 장학금 모금사업을 통해 매년 리더십과 지역

사회 봉사,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휴스턴 지회

회장__양영희(조소 93)

진선미를 실천하는 동창회

3월 31일(금) 늦은 봄나들이를 8명의 동창들과 Rienzi, Museum of Fine Art에서 보냈고, 4월 4일(화)부터 21일(금)까지 5월에 있을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많은 동창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목표액을 넘는 수익을 얻었다. 늘 동창회 일이라면 수호천사처럼 도와주는 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해서 행복한 휴스턴 지회이다.

올해로 제29회를 맞은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휴스턴 지회 장학금 수여식은 5월 13일(토) 11시에 Salvation Army International Corporation에서 열렸다. 15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덕담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휴스턴 지회는 매년 2명의 우수한 기독교인 여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차세대 여성 인재의 육성과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온, 휴스턴 지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그 자리에 함께함이 감사했다.

휴스턴 지회 장학금 수여식



박정복(사회과교육 57) 동창

박정복 동창이 3월 29일(수)부터 4월 4일(화)까지 한국미술관 주최 서예 문인화 대전 초대작가전에서 우수작가상을 수상했다. 또한 5월 3일(수)부터 9일(화)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 비엔날레 전시에 참가하였다.



박정복 동창

이정자(조소 66) 동창

4월 17일(월)부터 5월 14일(일)까지 '그림, 조각전'이라는 주제로 Gallery Helen. A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정자 동창

최효주(조소 69) 동창

2023년 5월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부처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동국대학교 문화관 동국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강순미(작곡 71) 동창

성신여대 명예교수인 강순미 동창이 4월 4일(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된 Quartet S 제6회 정기연주회((주)음연 주최)에서 창작곡 〈각설이 타령(for 'Quartet S')〉을 발표하였다.



강순미 동창

김화숙(의학 71) 동창

김화내과의원 원장 김화숙 동창이 3월 8일(수)부터 14

일(화)까지 조형갤러리에서 개최된 제17회 한국의사미술회전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에 작품을 출품해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장혜숙(의학 75)·박정선(의학 77)·임동란(의학 77) 동창의 작품도 출품되었다.



김화숙 동창

양수화(종음 71) 동창

양수화 동창이 단장으로 있는 글로리아오페라단이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개막작이자 예술의 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및 글로리아오페라단 창단 32주년 기념 공연으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5월 19일(금)부터 21(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양수화 동창

정미조(서양 72) 동창

'이화, 1970, 정미조' 특별전이 5월 17일(수)부터 10월 31일(화)까지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개막일인 5월 17일(수)에는 정미조 동창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제대 공감 콘서트'가 열렸다.



정미조 동창

정혜경(무용 72) 동창

정혜경 동창이 제37회 광주시민대상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했다. 정동창은 광주 수피아여고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고, 송원대 공연예술 학과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정혜경 동창

한인영(사복 72) 동창

모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인 한인영 동창이 2월 21일(화) 아시아 교육봉사회 제5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아시아교육봉사회(VESA, Volunteers for Educational Services in Asia)는 교육을 통해 선교와 봉사를 하자 하는 이화 동창들이 모여 설립한 사단법인 교육선교기관이다.



한인영 동창

김보희(동양 74) 동창

모교 명예교수 김보희 동창의 개인 전 '토워즈(Towards)'가 5월 30일(화)부터 7월 1일(토)까지 갤러리 바톤에서 열렸다.
또한 김보희 동창은 제주도로 이사한 후의 작업과 일상,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 산문집『평온한 날』을 출간하였다.



김보희 동창



오숙환 동창

오숙환(동양 75) 동창

모교 명예교수 오숙환 동창의 초대 전 '자연의 호흡'이 5월 20일(토)부터 6월 18일(일)까지 양주시 소재 안상철미술관에서 열렸다.



전길자 동창

조한희(과교 77) 동창

한국자연사박물관장 조한희 동창이 지난 1월 12대 한국박물관협회장에 취임했다. 조한희 동창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 충남박물관·미술관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한희 동창

황은미(국제사무 77) 동창

황은미 동창이 4월 1일(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회(학계·연구계·산업계 12명으로 구성)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1년이다. 황 동창은 지난 2023년 2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에 연임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황은미 동창

박정례(섬예 79)·윤미경(섬예 85)·신지혜(섬예 02) 동창

박정례·윤미경·신지혜 동창이 5월 12일(금)부터 20일(토)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다양성의 공존 Coexistence of Diverse'을 주제로 열린 국제섬유미술제(International Fiber Art Festival)에서 개별 부스 개인전을 가졌다. 박정례 동창은 옥양목과 비단실로 가을의 다양한 풍광들을 표현하였다. 윤미경 동창은 전통자수 기법을 현대적 표현으로 전이시킨 작업으로 실크, 펠트, 염색, 자수 등을 이용하여 섬유의 마티에르를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한국적 미를 현대적으로 구현하였다. 신지혜 동창은 위빙(Weaving)을 이용해 씨실과 날실의 겹침으로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기록한 작업을 하였다.



박정례 동창



윤미경 동창



신지혜 동창

조기주(서양 79) 동창

4월 26일(수)부터 5월 9일(화)까지 BEKA 갤러리에서 '스미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37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조기주 동창은 '스테인드시멘트'라 명명한 원형이나 정방형의 화면 위에 생동하듯 다양한 흔적이 스며든 고유한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조기주 동창

권숙교(수학 80) 동창

권숙교 동창이 하나카드 새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권숙교 동창은 국내 금융권 최초 여성 최고경영자 이자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정보기술 및 금융 전문가다. 우리FIS 대표, 한국여성정보인협회 회장, 한국신용정보원 사외이사, 금융보안원 자문위원,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등을 거쳤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다.



권숙교 동창

김미령(정외 80) 동창

대구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미령 동창이 미국 위스콘신대 사회복지 대학 동문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 김미령 동창은 12명으로 구성된 동문이사회의 유일한 외국인 이사로, 앞으로 동문 관계의 발전과 기금 모금, 대학 인지도 및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김미령 동창

이경림(약학 81) 동창

이경림 동창이 제19회 이화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5월 31일(수)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식에서 상을 받았다. 이화학술상은 이화여대 교수 중 탁월한 연구 성과로 학문·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수여된다.



이경림 동창

엄정순(서양 83) 동창

엄정순 동창이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첫 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엄정순 동창에게는 황금비둘기상과 상금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가 수여되었다.

박정자(커미부 명예졸업)·김순덕(영문 84) 동창

박정자·김순덕 동창이 '제21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5월 31일(수) 이화 창립 137주년 기념식에서 열렸다. 박정자 동창은 1962년 작품 '페드라'로 연극계에 데뷔한



박정자 동창 김순덕 동창

이래 60년 이상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국내 최정상급 배우로서 한국 연극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오며 문화예술계 발전을 이끌었다. 김순덕 동창은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로 입사한 이후 40년 동안 언론인으로서의 탁월한 활동을 펼쳐왔다.

박경란(의학 84) 동창

고신의대 방사선종양학과에 재직 중인 박경란 동창이 4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열린 2023년 세계 유방암학술대회에서 '유방암에서 전유방조사시 유방의 해부학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방사선치료'에



박경란 동창

대한 연구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이소전(梨素展)

5월 2일(화)부터 30일(화)까지 마포구 우우산로 소재 극동갤러리에서 15인의 동양화과 동창들이 제28회 이소전(梨素展)을 열었다. 참여 동창 : 변기숙(동양 84)·박순미(동양 85)·임서령(동양 85)·장현재(동양 85)·정수인(동양 85)·김은숙(동양 87)·윤희정(동양 88)·안효숙(동양 89)·이상희(동양 89)·이인전(동양 89)·박묘원(동양 92)·이보름(동양 92)·맹지은(동양 93)·정효진(동양 96) 동창



이소전 포스터



이지호 동창

이지호(서양 84) 동창

이지호 동창은 3월 22일(수) 제10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전남도립미술관장으로서, 지역 미술관 운영을 체계화

하고,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 예술문화 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조영주(의학 84) 동창

이대목동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조영주 동창이 5월 9일(화) 열린 ‘2023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영주 동창은 2020년부터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영주 동창

박신정(조소 85) 동창

하슬라미술관관장 박신정 동창이 ‘제26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을 수상하였다. (사)한국박물관협회는 매년 박물관·미술관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식은 5월 15일(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26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개최되었다.



박신정 동창

박인옥(서양 85) 동창

10월 31일(월)부터 11월 6일(일)까지 제주 담스튜디오갤러리에서 개인 전을 가진 데 이어, 3월 14일(화)부터 19일(일)까지 사이아트도큐먼트 선정작가로 20회 개인전을 안국동 사이아트 도큐먼트에서 가졌다. 또한 5월 18일(목)부터 6월 3일(토)까지 진주 아르토에서 21회 개인전을 가졌다.



박인옥 동창

신미선(서양 85) 동창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하는 2023년 성남중진작가에 선정되어 4월 14일(금)부터 6월 11일(일)까지 성남큐브



신미선 동창

미술관반달갤러리에서 ‘여행자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선보였다. 더불어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58차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조은정(서양 85) 동창

3월 2일(목)부터 5일(일)까지 COEX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조각페스타에 전시감독으로 선정되었다. 조은정 동창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조각예술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예술로서 조각적 담론 형성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



조은정 동창

김신자(서양 86) 동창

5월 4일(목)부터 11일(목)까지 아산 병원 동관 1층 갤러리에서 ‘행복한 나무, 마을을 담다Ⅱ’ 개인전을 가졌다.



김신자 동창

송은주(서양 86) 동창

5월 25일(목)부터 6월 10일(토)까지 갤러리FM(서울)에서 송은주 동창의 초대 개인전이 열렸다. ‘Sky Journey’를 주제로 삼나무 회화와 미디어아트 인터랙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Sky Journey’는 관람자와 작가가 미디어를 통해 하늘미학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송은주 동창

이정애(경제 86) 동창

3월 28일(화) 이정애 동창이 LG생활건강 대표이사에 신규 선임되었다. 이정애 동창은 1986년 LG그룹에 입사한 이후 생활용품사업부 마케팅 팀장, 생활용품사업부 지류마케팅 부문장, LG생활건강마케팅 전무를 지낸 바 있고, 지난해 그룹 내 최초의 여성 사장까지 올랐다.



이정애 동창

최현숙(행정 86) 동창

전 IBK캐피탈 대표 최현숙 동창이 벤처캐피탈 시너지 IB투자 금융부문 부회장에 선임됐다.

김혜자(서양 87) 동창

이탈리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자 동창이 4월 5일(수) 밀라노 Science and Technology 박물관에서 '5회 국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상을 수상하였다.



김혜자 동창

강현경(사회 88)·신지혜(커미부 11) 동창

이화여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이화언론인 클럽은 제 23회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로 강현경·신지혜 동창을 선정하였다. 강현경 동창은 국민일보 편집기자로서 33년째 한 분야에서 일하며 언론계 발전에 기여했다. KBS 정치부 기자인 신지혜 동창은 선거 보도로 시작해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시상식은 5월 25일(목) 모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박선희(장미 88)·김혜림(장미 04) 동창

박선희 동창이 2023 멜버른 국제초대작품전 'Empathy 2023' 작품으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주최한 제4회 한글실험 프로젝트에 박선희 동창이 협업 큐레이터로, 김혜림 동창이 작가로 참여하였다. 한편 김혜림 동창은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임용되었다.



박선희 동창

김혜림 동창

서혜수(도예 88) 동창

5월 31일(수)부터 6월 6일(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Gallery is에서 개인전 'Quiet Order_Freedom with Discipline'을 가졌다.

이상미(섬예 88) 동창

4월 5일(수)에서 5월 15일(월)까지 암구정동 라인 갤러리에서 'Dancing on a Cliff!'를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일반적인 거즈의 감각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감을 콜라주, 자수 등의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이상미 동창

호해란(조소 88)·김양선(조소 94) 동창

3월 27일(월)부터 4월 16일(일)까지 'HOME 집으로 가는 길: 꿈꾸는 집'이라는 주제로 Gallery Helen.A에서 2인전을 개최했다.



호해란 동창



김양선 동창

김선주(서양 89) 동창

4월 5일(수)부터 30일(일)까지 파주 LP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Blooming Romance'라는 주제로, 설렘, 프로포즈, For You라는 작품 등을 통해 아름다운 4월에 봄의 향기를 담아 전시하였다.



김선주 동창

박가나(서양 89) 동창

4월 4일(화)부터 22일(토)까지 강진 아트홀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The Colour of the Sky in My Heart'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하늘 빛을 마음에 담아 다양한 형태와 색감으로 해석하였다.



박가나 동창

이영미(제약 89) 동창

이영미 동창이 5월 30일(화) 유한양행 R&BD 담당 부사장에 임명되었다. 이영미 동창은 미국 하버드대 의대 다나파비 암 연구소, 독일 국립암연구소, 동아제약을 거친 뒤 한미약품에서 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한미약품 R&BD 총괄 전무를 역임하였다.

김희라(동양 90) 동창

4월 28일(금)부터 5월 26일(금)까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갤러리에서 기획초대 전을 가졌다.



김희라 동창

박효실(서양 90) 동창

5월 24일(수)부터 30일(화)까지 갤러리 인사이트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박효실 동창

이주현(영교 90) 동창

이주현 동창이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주현 동창은 2004년 씨티은행에 입행해 기업금융업무부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부터는 업무·전산그룹장(전무)을 맡아 비즈니스·기능 조직과의 협업을 확대했다.



이주현 동창

이화정(피아노 90) 동창

피아니스트 이화정 동창이 4월 27일(목)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 기원 행사’에서 축하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피아노와 전통 한복 패션쇼의 콜라보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5일(토)에 있었던 ‘페션’을 주제로 한 단독 콘서트에서는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연주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화정 동창

홍선미(무용 90) 동창

현대무용가 홍선미 동창이 3월 2일(목) 삼육대학교 통합예술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5월 29일(월)에는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정상회의’의 만찬 공연을 안무하여 공연했다.



홍선미 동창

서혜영(조소 91) 동창

4월 20일(목)부터 6월 18일(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노드: 하나의 전체’ 개인전을 가졌다.



서혜영 동창

박소정(무용 92) 동창

5월 6일(토)부터 7일(일)까지 한국 펠든크라이스 인스티튜드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제1회 펠든크라이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박소정 동창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펠든크라이스 기법과 춤을 접목하여 박사 논문(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을 발표했고, 이후 성수동에 국제 펠든크라이스 협회의 한국 지부를 열어 한국 총괄 책임자로서 ‘국제 공인 펠든크라이스 전문가 과정’을 주최하고 있다.



박소정 동창

손정은(조소 92) 동창

3월 14일(화)부터 4월 2일(일)까지 ‘Three Days Three Nights’라는 주제로 온수공간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손정은 동창

심정원(사복 92) 동창

심정원 동창이 3월 3일(금)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회장직에 재임되었다. 심 동창은 서울시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전체의 대표로서 3년간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에 기여하여 재임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심정원 동창

양지 류은(동양 92) 동창

양지 류은 동창이 5월 19일(금)부터 24일(수)까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혜화아트센터에서 개인전 ‘바람의 이야기(Tale of Wind)’를 가졌다.



양지 류은 동창

이진경(의학 92) 동창

4월 19일(수) 이진경 동창이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임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이진경 동창

김린아(사복 93) 동창

3월 30일(목)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강동경희대학병원 사회사업 팀장인 김 동창은 1995년부터 28년 동안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헌신했다.



김린아 동창

김선희(영교 93) 동창

이화인론인클럽 신임 회장에 김선희 동창이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선희 동창은 YTN에서 10여 년 간 앵커로 근무했으며, 현재 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맡고 있다. 부회장은 권혜숙(영교 96)·은지향(정외 96)·최신영(생미 07) 동창이 맡았다.

태혜신(무용 93) 동창

태혜신 동창이 4월 6일(목) (사)강릉 단오제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태 동창이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태혜신 카르마프리무용단이 5월 27일(토) 강원도 정선의 (재)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202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 레퍼토리 〈태혜신 카르마프리무용단 – Flowers in Heaven〉을 공연했다.



태혜신 동창

최영아(의학 95) 동창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 최영아 동창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4월 7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영아 동창

제51회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백인정(조소 96)·차경화(조소 00) 동창

3월 5일(일)부터 26일(일)까지 '숨죽인 비밀, 움트는 소리'라는 주제로 Gallery Helen,A에서 2인전을 개최했다.



백인정 동창



차경화 동창

송혜영 (피아노 96) 동창

피아니스트이자 웨더포드 컬리지 교수인 송혜영 동창이 지난 2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시리즈를 시작하였으며, 웨더포드 컬리지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총감독으로서 지난 4월 제5회 콩쿠르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또한 매해 전미와 캐나다에서 20명의 교육자에게 수상하는 2023 스타인웨이 교육자 명예의 전당(Steinway Teacher Hall of Fame)에 선발되어, 오는 10월 시상식에 참가하고 뉴욕 스타인웨이 본사에 영구히 이름을 남기게 된다.



송혜영 동창

양윤정(루나 양, 동양 96) 동창

3월 15일(수)부터 29일(수)까지 종로구 인사동 소재 갤러리 가이아에서 네 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다섯 번째 개인전(그 순간순간)을 5월 8일(월)부터 29일(월)까지 서초구 소재 퍼블릭 갤러리에서 가졌다.



양윤정 동창

윤혜영(영문 96) 동창

윤혜영 동창이 쿠팡의 홈리빙, 레저, 그로서리, 로켓프레시 등을 총괄하는 각자대표가 되었다.



윤혜영 동창

이상의(동양 96) 동창

3월 29일(수)부터 4월 9일(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통인화랑에서 개인전 '옻칠 회화·봄의 정원'을 가졌다. 이상의 동창은 윗칠의 전통적이면서도 중후함을 이용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했다.

이혜원(섬예 96) 동창

5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된 조형아트 서울에 참가하였다. 이혜원 동창은 북아트의 바인딩기법과 독창적인 종이조형기법을 기반으로 '나의 서재와 '책의 분석'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다.



이혜원 동창

국 극동갤러리에서 개최했으며, 함께 제작한 공동작품은 극동방송국에 기증했다. 또한 4월 21일(금)부터 5월 17일(수)까지 '빛의 노래'라는 주제로 새문안갤러리에서 10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박혜성 동창

김현경(동양 97) 동창

4월 20일(목)부터 5월 14일(일)까지 양주시 소재 안상절미술관에서 개인전 'About Time'을 가졌다. 김현경 동창은 『대한민국 현대 미술 역사』에서 김영나가 묘사했듯이 후기 자유주의 추상화의 연속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평가를 듣는다.



김현경 동창

백원선(생미 98) 동창

백원선 동창이 4월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공예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청주대 공예디자인학과는 전통적인 생활 공예와 하이테크(Hi-Tech) 산업 공예의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는 학과이다.



백원선 동창

손세원(도예 98) 동창

2월 23일(목)부터 4월 8일(토)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Galerie Berghout에서 'Form Follows Forest' 전시를 가졌다.



손세원 동창

곽현주(장미 97) 동창

3월 19일(일) DDP의 Arthall에서 곽현주 동창이 이끄는 브랜드 곽현주 컬렉션이 서울패션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곽현주 동창

오수연(조소 98) 동창

4월 4일(화)부터 10일(월)까지 '바라보다, 흔한 풍경'이라는 주제로 갤러리코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오수연 동창

이경희(동양 98) 동창

이경희 동창의 초대전이 3월 10일(금)부터 4월 13일(목)까지 GS타워 더스트리트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경희 동창에게 동물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무늬는 생명을 향한 자유로운 상상의 길을 열어주며 존재의 생명력을 담아내는 상징이다.



이경희 동창

정승은(생미 99)·엄윤경(생미 07)·성유진(생미 09)·김민송(생미 17) 동창

정승은 동창이 (주)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진행한 'S-Fire Safety Module Experience' 가 'iF Design

박혜성(서양 98) 동창

남북통일을 소망하며 탈북 작가와 함께 '에하드(하나됨) 2인전'을 3월 16일(목)부터 30일(목)까지 극동방송

Award 2023'의 DISCIPLINE PROFESSIONAL CONCEPT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외에도 성유진 동창의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프로젝트'와 엄윤경·김민송 동창의 현대백화점 친환경 쇼핑백 프로젝트 'PROJECT 100'이 패키지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다.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독립 디자인 기관으로서 매년 최고의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iF 디자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민경(커미부 00) 동창

한국MSD 대외협력부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김민경 동창이 5월 1일(월) MSD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승진하였다.



김민경 동창

신혜선(도예 00) 동창

5월 24일(수)부터 30일(화)까지 갤러리도스에서 '사색 종이가방: 마음을 산책하다' 전시를 열었다.

심준희(한음 00) 동창

애틀랜타 한국학교 교사 겸 교무로 재직 중이던 심준희 동창이 다음 학기부터 신임 교장으로 선임되었다.



심준희 동창

이재민(장미 00) 동창

이재민 동창이 서울패션위크 23F/W GENERATION NEXT에 선정되어 패션쇼에 참가했다. 쇼는 3월 17일(금) DDP의 Arthall에서 진행되었다. M.RoF는 불확정, 비고정적미를 추구하는 패션브랜드로서 옷에 대한 기존의 관념과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을 지향한다.



이재민 동창



김순임 동창

김순임(조소 02) 동창

3월 23일(목)부터 6월 18일(일)까지 '흐르는 공간'이라는 주제로 삼각산

금암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박은선(통계 02) 동창

박은선 동창이 락액락의 자회사 락커룸코퍼레이션의 신임 대표로 선임되었다. 박은선 동창은 뷰티와 식품, 전자 및 외국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모두 경험한 마케팅 전문가다.



이은이 동창

이은이(조소 02) 동창

4월 6일(목)부터 18일(화)까지 '기억을 만드는 봄'이라는 주제로 아트스페이스 웰리아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김주희 동창

김주희(동양 03) 동창

5월 20일(토)부터 6월 3일(토)까지 갤러리 자작나무에서 개인전 '평온한 마음' 전시회를 가졌다.



손혜경 동창

손혜경(조소 03) 동창

제18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자인 손동창이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수상 전 '구체적 낭만'을 5월 23일(화)부터 9월 10일(일)까지 열고 있다.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고 사유함으로써 낭만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추구했다.



진민옥 동창

진민옥(동양 03) 동창

3월 18일(토)부터 4월 23일(일)까지 영은미술관에서 '펼쳐지고 깊어지는(Unfolding and Deepening)'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김아영(도예 04) 동창

4월 26일(수)부터 9월 30일(토)까지 한향림 도자미술관에서 컨셉추얼 니닉9 '구전, 빛처럼 퍼지는 이야기' 전시를 열고 있다.

이경진(장미 04) 동창

이경진 동창이 2022년도 (사)한국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협회의 정기 전 'K-Fashion Illustration'에서 'Bojagi' 작품으로 2022 영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다.



이경진 동창

정유미(동양 05) 동창

4월 13일(목)부터 27일(목)까지 갤러리 오래된집에서 '숨(Breath)'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가졌다. 전시한 작품은 '상상풍경(想像風景)' 시리즈로 자연으로부터 영감 받은 자유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정유미 동창

이다경(성악 06) 동창

서울 청원초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 중인 이다경 동창이 에세이『마음 향기』를 출간하였다. 이다경 동창은 2020년에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전현지(도예 09) 동창

4월 28일(금)부터 6월 4일(일)까지 한남동에 위치한 갤러리 '워킹워드프렌드(WWF)'에서 개인전 'Song of Gravity'를 가졌다.

신영미(간호 10) 동창

이대서울병원 외과제증환자실 간호사로 재직 중인 신영미 동창이 『프셉마음—약물계산』을 출간했다. 이 책은 병동 약물 계산의 다양한 케이스와 실무 텁을 담은 실전 가이드북이다.

김자영(도예 16) 동창

5월 11일(목)부터 31일(수)까지 갤러리 ERD 서울에서 'Motion of Memory' 개인전을 가졌다.

신다인(도예 16) 동창

2월 1일(수)부터 3월 25일(토)까지 Space B-E에서 'Dancing Grid'라는 주제로 전시를 가졌다.

임 율(동양 17) 동창

4월 25일(화)부터 5월 1일(월)까지 갤러리도스에서 개인전 '자유롭게, 뒤섞인 문자형태들(Free and Mixed Forms of Text)'을 가졌다. 임 동창의 작업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무작위적 표현에 의한 반복을 통해 무아지경(無我之境)의 정신적 자유와 해방에 이르는 치유의 미학을 표현한 문자 추상화이다.



임 율 동창

김보경(조소 19) 동창

5월 17일(수)부터 21일(일)까지 '초고도 성장시대의 도시풍경'이라는 주제로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보경 동창

고승연(도예 19) 동창

4월 5일(수)부터 11일(화)까지 갤러리도스에서 개인전 'Alibi Series 3 : Love'를 개최하였다.

임건희(도예 19) 동창

2월 16일(목)부터 3월 5일(일)까지 챔버1965에서 '사각, 삼각'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

조영선(도예 19) 동창

3월 8일(수)부터 14일(화)까지 갤러리도스에서 'Memory of Hands' 전을 가졌는데 2023년 상반기 갤러리도스 '시간의 잔상' 기획공모 선정작가 전이다.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동창 여러분 중
주소가 변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국내 최초 VVIP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

아무나 진행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집안의 성혼을 이루어 낸
24년 전통의 자부심으로
집안까지 생각하는 당신의 성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50, 2층 www.snoble.com



Clara



THE ONE AND ONLY BRAND STORY

세상에 단 하나뿐인 테일러메이드를
고집하는 클라라는 ‘지속성과
노블하며 우아한 예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브랜드의 핵심 소재인 진주와
천연 원석을 테마로 작품성과 ONE AND ONLY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지닌
신뢰받는 브랜드입니다.



Made to Order

예물 및 맞춤제작

주얼리

소장품 디자인 변경

및 섬세한 수리

Diamond upgrade

• 화여대 동창 우대



PREMIUM WORKSHOP



문의전화 02.310.9901